

전략연구 2011-10

충남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에 대한 연구

장경호 · 이호중 · 박지은 · 홍영석

발 간 사

우리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며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10년 현재 읍면지역의 고령화율은 20.9%이고 동지역의 고령화율은 9.1%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도시보다 두배 이상이나 된다. 또한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1.8%로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1.3%보다 약 3배나 높은 실정이다.

충남도의 경우에도 도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편차가 커서 계룡시와 천안시의 고령화율은 각각 7%, 8%에 불과한데 비해 부여(29.1%), 서천(30.1%), 청양(32.4%) 등 군지역의 경우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급격한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고, 복지관련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 및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에게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건강 증진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는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촌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여건은 매우 취약하며 이에 대한 선행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농가경제의 악화, 농촌빈곤의 확대 등 우리 사회 농촌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열악함은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노인문제 해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농촌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며, 사례분석을 통한 유형화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개별 일자리 창출을 넘어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의 통합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결과가 충남지역 농촌노인들

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2011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기대효과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1. 기존연구 검토	6
2. 연구의 내용	8
3. 연구의 방법	9
 제2장 노인일자리 현황	 11
제1절 노인일자리의 개념	11
제2절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14
제3절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사업	21
제4절 소 결	26
 제3장 농촌노인일자리 면접조사	 28
제1절 면접조사 현황	28
제2절 사업수행자 면접조사	30
제3절 농촌노인 면접조사	38
제4절 전문가 인터뷰	47
 제4장 농촌노인일자리의 특징과 실태	 55
제1절 노인일자리의 일반적 특징	55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55
2. 노인일자리의 특징	56
제2절 농촌노인들의 일반적 특징과 일자리 실태	61
1. 농촌노인들의 일반적 특징	61
2. 농촌노인일자리의 실태	65
제3절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의 특수성	69

1. 노인일자리의 여건 취약	69
2. 생활권의 분산과 이동수단의 제약	70
3.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71
4. 농촌 공동체 존립의 위기	72
제5장 농촌노인일자리 사례분석	74
제1절 농촌노인일자리 사례분석	74
1. 완주군 두레농장 - 지역농업 재편전략속에 로컬푸드 생산의 거점역할	74
2. 영광군 여민동락 할매손 - 농촌공동체 복원과 부흥을 목표	78
3. 언니네 텃밭 - 여성농민이 주도하는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	82
4.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손맛사업단 - 어르신들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	86
5. 홍성군 은퇴농장 - 고령농민과 도시은퇴자의 상생모델	89
6. 옥천군 산계뜰 친환경농영농조합 - 농촌노인·귀농인이 상생하는 공동체	92
7. 강화군 콩세알나눔센터 -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일하는 생산공동체	96
8. 서천군 얼굴있는 먹거리 - 지역먹거리와 노인일자리의 연계	98
9. 오산시 잔다리 마을공동체 농업회사 - 도농 공동체형 마을기업	101
10. 기타(보은군, 해남군, 홍성군)	104
제2절 소결	110
제6장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111
제1절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방향	111
1. 농촌공동체의 재구축	111
2. 지역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전략과 연계	112
3. 경제·복지·교육·문화 측면의 통합적 접근	114
4. 농촌노인의 자발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 강화	115
5.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	116
6. 농촌지역의 특성과 농촌노인의 특징을 고려	118
제2절 농촌노인일자리 유형별 분류	122
1. 농촌노인일자리 유형별 분류기준	122
2. 농촌노인일자리 유형별 예시	124
제3절 농촌노인일자리 추진방식	138
1. 주체발굴 및 사업조직의 단계별 육성	138
2.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인큐베이팅	139
3. 네트워크 강화	141

4. 노인자발적 모임의 활성화	142
5. 지속적인 교육사업의 전개	143
제7장 제언	144
[요약문]	152
[참고문헌]	168
[부록1] 면접조사·인터뷰 질문내용	171
[부록2] 녹취록 (별첨)	

표 목 차

[표 1] 노인 및 중고령자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13
[표 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예산지원	16
[표 3] 년도별 노인일자리사업 목표 및 실적변화	17
[표 4] 사업수행기관별 현황	18
[표 5] 지역별 유형별 참여노인 현황	19
[표 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사업 참여 동기	20
[표 7] 노인인구대비 일자리 창출실적	21
[표 8]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사업실적 비교	22
[표 9] 도별 국비미지원 일자리 창출실적	23
[표 10] 2010년 예산집행결과	24
[표 11] 도별 국비미지원 사업 투입예산비중	25
[표 12] 노인 일자리 면접조사 수행결과	28
[표 13]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38
[표 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변화	57
[표 1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교육수준	59
[표 16] 선호하는 일자리 형태	59
[표 17] 구직노력 및 구직성공경험	60
[표 18] 농촌 빈곤농가의 비율	61
[표 1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교육 수준 조사	64
[표 20] 거주지역별 분포	70
[표 21] 농촌노인일자리 사례	74
[표 22] 두레농장 사업현황	75
[표 23] 농촌노인일자리 유형의 분류기준표	123
[표 24]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 유형 예시	124
[표 25] 농촌노인일자리 사례	160
[표 26] 농촌노인일자리 유형의 분류기준표	163
[표 27]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 유형 예시	164
[표 28] 사업수행자 심층면접 질문내용	171
[표 29] 농촌노인 표적집단면접 질문내용	172
[표 30] 전문가 자문 인터뷰 질문내용	173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방법 흐름도	10
[그림 2] 노인일자리사업 체계도	14
[그림 3]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실적	17
[그림 4] 사업수행기관별 실적	18
[그림 5] 고령농민과 도시은퇴자 상생모델	91
[그림 6] 여성농민 주도형 모형도	126
[그림 7] 노인 주체형 모형도	128
[그림 8] 고령농민과 도시은퇴자 결합형 주요내용	129
[그림 9] 마을주민기업형 모형도	130
[그림 10] 로컬푸드 생산 거점형 모형도	131
[그림 11] 귀농귀촌인 지원형 주요내용	133
[그림 12] 영농·가공사업 연계형 주요내용	134
[그림 13] 경제, 복지, 문화, 교육 통합형 모형도	135
[그림 14] 도농공동체형 모형도	136
[그림 15] 마을공동체 유지형 모형도	137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며,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

○ 2010년 현재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는 542만명, 전체 인구의 11.3%이고 2000년 7.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고령화의 진전은 농촌지역에서 현저한데 2010년 현재 읍면지역의 고령화율은 20.9%이고 동지역의 고령화율은 9.1%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두배 이상임.

○ 또한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1.8%로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1.3%보다 약 3배 더 높아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음.

2) 충남도의 고령화율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도내 시군중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더욱 심각함.

○ 충남도의 경우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1만명으로 고령화율은 15.5%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39%나 높은 수치임.

○ 도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편차가 커서 계룡시와 천안시의 고령

화율은 각각 7%, 8%에 불과한데 비해 부여(29.1%), 서천(30.1%), 청양(32.4%) 등 군지역의 경우 30%를 상회하고 있음.

- 또한 2010년 현재 읍면지역의 고령화율 평균은 20.5%이고 동지역의 고령화율 평균은 7.9%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2.6배 높으며 65세이상 인구중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79.7%에 달하는 상황임.

3) 급격한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축소시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연금·의료비 등의 복지관련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간 갈등의 소지마저 발생하는데, 통계청(2006) 자료에 따르면 노인1명당 부양자 수는 2009년 생산가능인구 6.8명에서 2020년에는 4.6명으로 2050년에는 1.4명으로 줄어듦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개인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나 소득수준의 저하,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자녀들의 부양의식 저하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증가 할수밖에 없음.
- 노인 자살 및 빈곤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2009)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75세 이상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8.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 자료(2009년)에 따르면 노인 소득빈곤율이 45.1%로 OECD 국가(평균 13.3%) 중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노인일자리는 노인문제해결의 주요방안중 하나임.

- 노인일자리는 노인 4대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빈곤', '질병', '역할없

음', '고독'을 해결하는데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건강 증진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5) 하지만 농촌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여건은 매우 취약하며 이에 대한 선행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임.

-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수행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도시에 비해 일자리의 다양성이 떨어지며 특히 민간영역의 사업개발이 되지 않는 등 여건이 취약한 실정임.
- 또한 농가경제의 악화, 농촌빈곤의 확대 등 우리 사회 농촌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열악함은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노인문제 해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특히 도시와 다른 농촌지역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농촌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은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연구의 목적

1) 농촌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수요 파악

- 농촌노인들의 처지는 어떠한지, 어떤 일자리를 요구하는지, 이런 요구를 실현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 농촌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2)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도출

- 심각한 고령화, 일자리 관련 인프라의 취약, 공동화현상, 생활권의 제약 등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농촌노인들의 특징과 요구에 부합하는 일자리 활성화 방향을 마련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유형화에 주안점을 두고자 함.

3) 개별 일자리 창출을 넘어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의 통합적 연계방안 모색

- 단순히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개별사업 차원을 넘어 농촌공동체 재구축,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농업재편전략, 마을기업·사회적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커뮤니티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흐름 등과의 연계를 통한 농촌노인일자리 창출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임.

3. 기대효과

1) 농촌노인들에 적합한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

- 도시와는 다른 농촌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하고 농촌노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며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충남도 농촌노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

- 도시에 비해 더욱 열악한 농촌지역 상황에서 농촌노인들의 일자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충남도 농촌노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충청도내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는데 기여

- 노인문제 해결의 중요 방안중 하나인 노인일자리를 활성화함으로써 고령화의 심화로 발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기존연구 검토

1)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선행연구들은 주로 2004년부터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자 일자리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증,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 일자리 사업의 경제외적 효과분석, 성별영향평가 및 여성 노인일자리와 관련 특화된 연구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었음.

○ 김준환(2010)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각 유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에 따른 만족도와 효과성에 관해 분석하였으며, 임우석(2008)과 김학만(2011)은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한데 기초하여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김상호(2006)는 장애인 일자리지원서비스와의 연계를, 지은구(2009)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김희연(2008)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도농간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서현주(2009)는 충남지역 시니어클럽의 현황 분석에 기초해 정책제언을 한바 있음

○ 또한 이석원(2009)은 의료비 절감효과 등 노인일자리사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적’ 효과를 검증하였고, 윤홍식(2010)은 가족 내 돌봄 제공, 세대 간 소득이전, 가족관계, 사회관계, 전통적 성역할 등과의 관계를 추정하였으며, 이은아(2005)는 성별영향평가를, 장혜경(2003)은 여성노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을, 박영란(2003)과 이숙진(2000)은 여성빈곤해결의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음.

○ 남기철 외(2008)의 연구는 2004년~2007년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를 통하여 대상노인의 욕구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의 내용적 취약함, 시장형 일자리의 소득취약성, 수행인프라의 취약성, 유관사업과의 유기적 통합성 결여, 과도한 사업목표에 따른 후속관리의 취약성 등을 지적함.

○ 농촌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원종태(2007), 박종규(2008) 등 두 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있으나 구체적 일자리 사례나 창출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함.

2) 농촌노인관련 선행연구 대부분은 복지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되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특화된 연구는 거의 없음.

○ 김영주(2008)는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에 대한 연구를, 강희숙(2007)은 농촌노인의 건강과 생활만족의 관계를 실증하였고, 이기영(2006)은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농촌 독거노인 사례연구를, 변영우(2010)는 농촌지역의 재가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 강현정(2009)은 농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 김재열(2008)은 군단위를 배경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모델을 제시한바 있음.

○ 또한 김주원(2004)은 농촌노인 경제활동 실태분석을 통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한바 있음. 이은구 외(2005)의 「거주지역·경제능력 등에 따른 농촌노인의 유형화 및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는 농촌 노인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실증적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사회구조를 유형화 하고, 그 유형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모형을 제시함.

○ 한정자 외(2002)의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복지 현황과 문제

점을 파악했으며,

○ 박대식(2004, 2009, 2010)은 농촌노인들의 영농 활동,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자산소득, 소비·저축 및 부채 실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농촌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조사한데 이어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농촌 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3) 농촌노인복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농촌노인의 처지와 요구에 대한 이해를 높여줌으로서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방안 마련에 있어 하나의 출발점을 제시해주고 있음.

○ 선행연구에서 농촌노인일자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농촌노인들의 경제적 실태, 사회적 처지,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한 연구와 농촌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실태에 대한 분석은 농촌노인이 처해있는 상황과 그들의 요구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가능케 함으로서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없었던 농촌노인일자리에 특화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농촌노인들의 요구와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농촌노인일자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연구의 내용

1) 농촌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수요 조사 분석

○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보다는 농촌노인들의 처지는 어떠한지, 어떤 일자리를 요구하는지, 이런 요구를 실

현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 농촌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조사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함.

2) 개별 일자리 창출을 넘어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의 통합적 접근 시도

- 단순히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개별사업 차원을 넘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회생전략과 연계하고자 하며, 경제·복지·교육·문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 고령인구 및 농촌노인일자리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노인일자리 및 농촌노인일자리 관련 논문·연구보고서·세미나 발표자료를 검토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농촌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또한 농촌노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수집하고, 관련 연구보고서·세미나 발표자료를 검토함으로써, 노인들의 처지와 요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경제·복지·교육·문화 등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각종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농촌노인일자리와의 연계방안을 찾고자 함.

2) 면접조사

○ 농촌노인일자리의 다양한 사례에 해당하는 사업수행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촌노인들의 요구와 수요,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농촌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노인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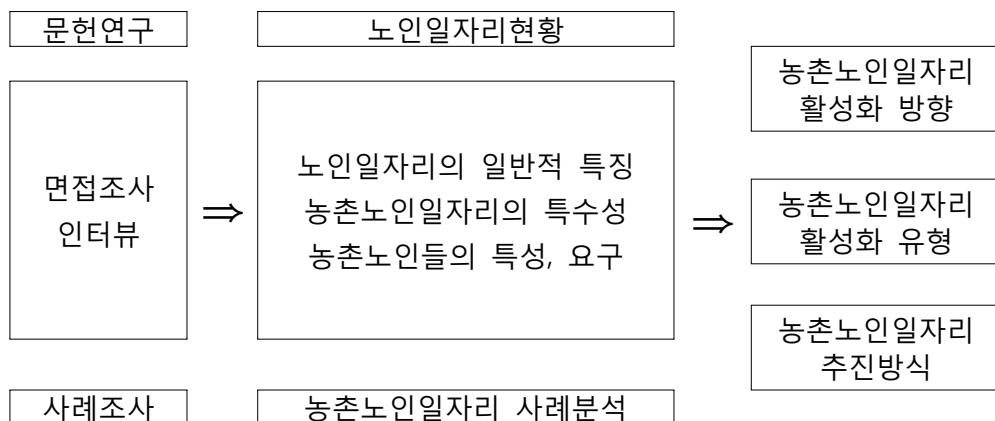
3) 전문가 인터뷰

○ 면접조사를 통해 나타난 농촌노인 및 사업수행기관의 요구와 의견을 일반화, 정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함.

4) 다양한 사례 조사

○ 농촌노인일자리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농촌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 유형을 마련하고자 함.

[그림 1] 연구방법 흐름도



제2장 노인일자리 현황

이 장에서는 노인일자리의 개념과 정부와 충남도의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의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지만 현황 부분에 있어 전반적인 노인일자리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기에는 자료와 연구기간이 부족하므로 부득이하게 정부와 충남도의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노인일자리의 개념

1. 노인일자리의 의미

- 소득확보를 전제로 하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일반 시장과 기업에서 노인의 고용촉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임.
-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의사가 있지만 노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층 규모는 대단히 큰데 노인에게 연금 등 소득보장 체계를 확충하는 것과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의 계획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도 그 중 하나임.
 - 그런데 남기철(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라기보다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주도하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

램을 지칭하는 고유명사화 되었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인 연속성과 공간적인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서 단편적인 활동내용 중심의 일거리와 구분되는 것이며, 사회의 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로서 교육, 의료, 사회복지, 환경, 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정의함.

2. 노인일자리사업의 경과

- 남기철(2010)에 따르면 노인 및 중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중 대표적인 것은 노동부가 실시해온 것으로 주로 고령자고용 촉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대표적인 내용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기준고용률 규정, 고령자에 대한 우선고용직종 고시와 추진,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 지도의 운영, 그리고 고령자인재은행사업 등이 있음.

- 그런데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지원사업은 50대의 노년기 진입예정인 연령층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사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는 대조를 나타내고 있음.

- 복지부나 행안부의 사업은 보다 높은 연령대의 노인을 중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 형태로 취업알선센터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1980년 후반부터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에 부설된 노인공동작업장 사업도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작업을 통해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소득액 역시 매우 낮은 상황임.

[표 1] 노인 및 중고령자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구분	사업
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인재은행과 고용안정센터 고령자 적합직종 선정 및 채용공고
복지부 및 행안부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자료 : 남기철,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NGO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과’, 2010에서 재정리

○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령층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임.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논의는 참여정부 ‘노인복지 4대 핵심국정과제’로 대두되면서 본격화됨.

-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까지 총 1조 1,4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총 21만 6,44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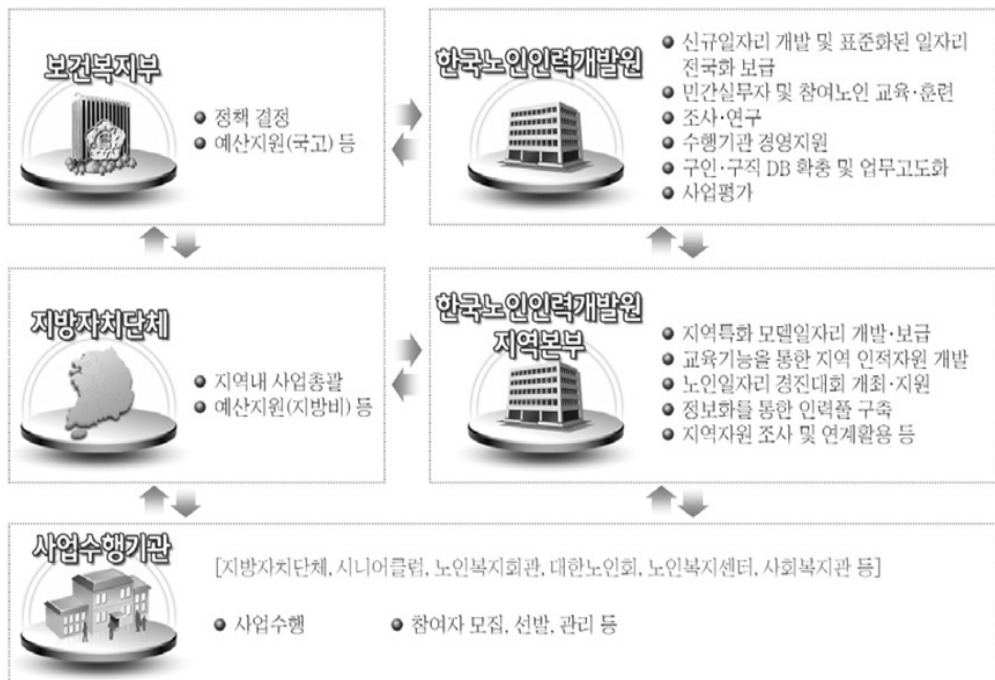
- 당초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매년 사업량을 초과하는 사업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대다수 노인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정착시켜주고 있음.

제2절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1. 사업추진체계

- 이 절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중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음.

[그림 2] 노인일자리사업 체계도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는 정책결정과 예산의 국고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사업을 총괄하며 지방비 부담을 맡고 있음.
- 노인인력개발원과 지역사업본부는 개발과 보급, 조사연구, 기획, 경영지원과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음.
- 일선의 사업수행기관이 참여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하도록 한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방식임.

2. 사업유형과 예산지원

○ 노인일자리사업은 제공되는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몇가지로 유형이 구분됨.

- 기본적으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일자리로 구분되며, 이같은 구분은 참여노인의 인건비가 직접 정부예산에서 지급되는가 아니면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얻어진 성과에 기반하여 사업체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가 하는 점이 구별의 기준이 됨.
- 공공분야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분류되고 민간분야는 인력과 견형과 시장형, 창업모델형사업으로 분류됨.
-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은 참여노인 1인당 7개월간 20만원의 급여가 제공되고 사업관리를 위한 부대경비가 예산에 약간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주요 수행기관이 되고 있음.
- 민간분야의 경우 인력과견형은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고 노인 1인당 연 10만원에서 15만원의 사업부대경비가 지원되며, 시장형 사업은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임.

[표 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예산지원

유형			1인당예산지원		
			인건비(월)	기간	부대경비
공공 분야	공익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환경, 자원재활용, 아동보호 등)	20만원	7개월	13만원 내외
	교육	자신의 경험과 지식 전달 (문화재 해설사, 학습 지도 등)			
	복지	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돌봄 사업, 환경 개선 등)			
민간 분야	인력 파견형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 (가정도우미, 경비원, 미화원 등)	-	연중	15만원 내외
	시장 형	소규모 창업 (영농 식품제조, 매장운영, 택배 등)	-	연중	130만원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 노인일자리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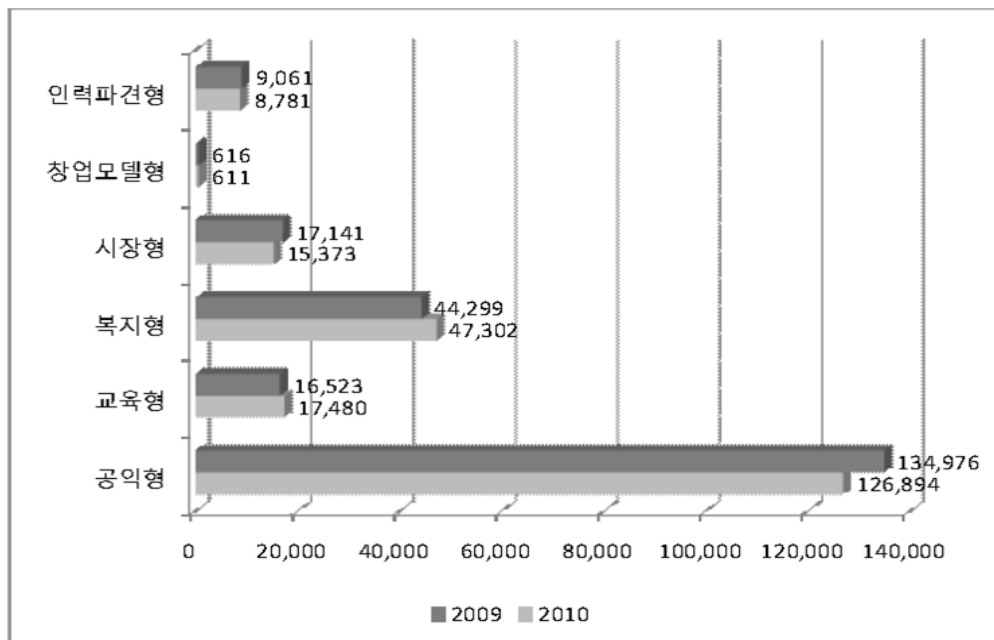
- 2004년 첫째 3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2010년 21만 6,441개의 일자리 창출함으로서 양적으로는 비약적 성장을 이룸.
- 일자리 유형별로는 2010년 현재 공익형 일자리는 13만 4,976개로 전체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일자리는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시장형을 합하여 전체의 1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 년도별 노인일자리사업 목표 및 실적변화 (단위 : 천개)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목표	25	35	80	110	117	196	189
실적	35	47	83	116	126	222	216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그림 3]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실적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4. 일자리 수행기관별 실적

○ 2010년 현재 총 1,136개의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단은 총 4,441개가 참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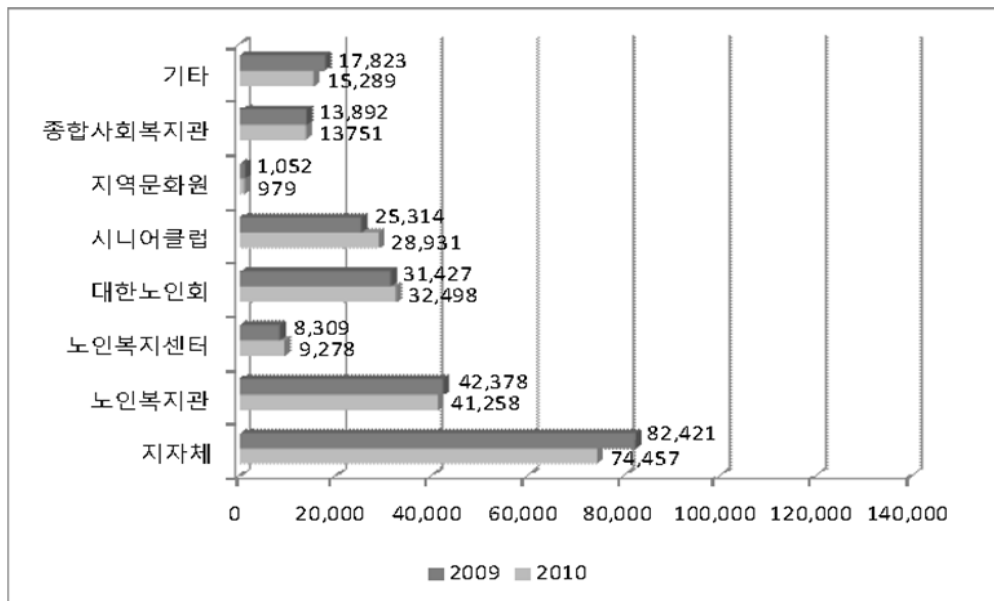
○ 2010년 현재 노인일자리수는 지자체가 7만 4천여개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복지관이 4만 1,258개, 시니어클럽이 2만 8,931개로 많았음. 기관당 일자리수는 지자체를 제외하면 민간분야 사업개발 능력을 가진 시니어클럽이 325.1개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사업수행기관별 현황

	합계	지자체	노인 복지관	노인복 지센터	대한 노인회	시니어 클럽	지역 문화원	사회 복지관
기관 수	1,136	177	178	153	201	89	25	158
사업 단수	4,441	614	1,094	278	763	845	46	424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그림 4] 사업수행기관별 실적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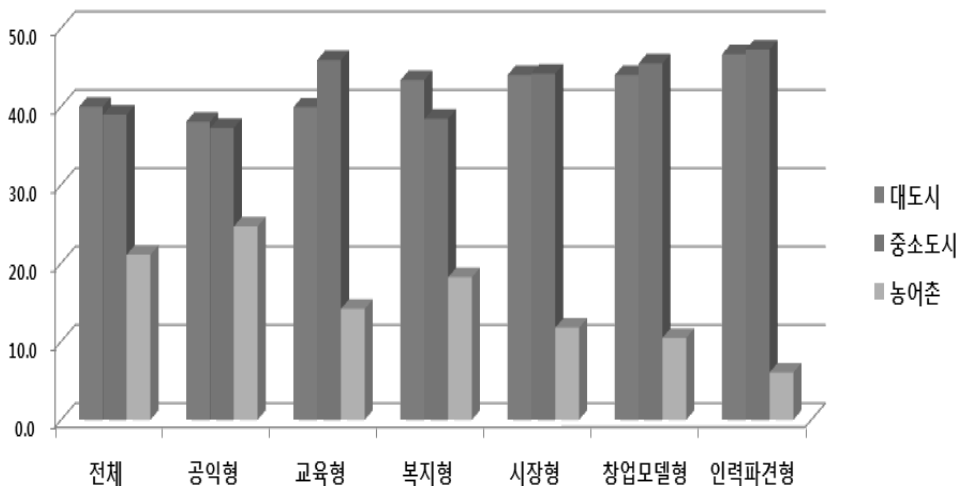
5. 참여노인 현황

○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속한 지역은 대도시가 전체의 40%, 중소도시 38.9%, 농어촌 지역은 21.1%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교육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인력파견형 등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 여건이 매우 취약함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표 5] 지역별 유형별 참여노인 현황

	전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창업 모델형	인력 파견형
대도시	99,629	58,713	7,380	22,400	6,769	269	4,098
중소도시	97,060	57,490	8,496	19,848	6,795	278	4,151
농어촌	52,518	38,091	2,620	9,402	1,809	64	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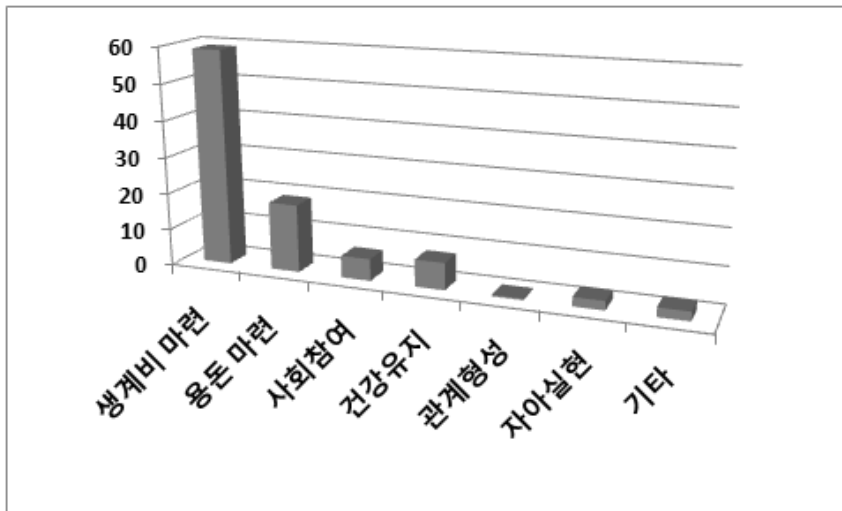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6. 참여노인의 참여동기

-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사업참여 동기는 생계비 마련이 59.0%, 용돈 마련이 18.6%로 대다수인 77.6%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사업 참여 동기 (단위 : %)

	2010년
전체	100.0
생계비 마련	59.0
용돈 마련	18.6
사회 참여의 수단	6.0
건강 유지의 수단	7.4
관계형성, 소외감해소	0.4
자아실현, 자기발전의 수단	2.5
기타	2.5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제3절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사업

1. 노인일자리 실적

- 2010년 현재 충남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1만 3,689명이고 일자리는 1만 2,347개이며 충남도 노인인구 대비 일자리 참여율은 4%를 나타냄. 충남도의 일자리참여율은 전국평균 3.9%와 비슷하며 충북도의 3.3%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남북, 강원 등에 비해서는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7] 노인인구대비 일자리 창출실적 (단위 : 개, 명)

도별	창출실적	참여노인수	노인인구대비 참여율
경기	27,860	31,001	2.7
강원	12,261	15,876	5.4
충북	6,718	7,212	3.3
충남	12,347	13,689	4
전북	16,653	19,006	5.9
전남	17,214	22,901	4.9
경북	16,375	19,331	3.9
경남	16,005	18,384	4.1
전체	216,441	249,207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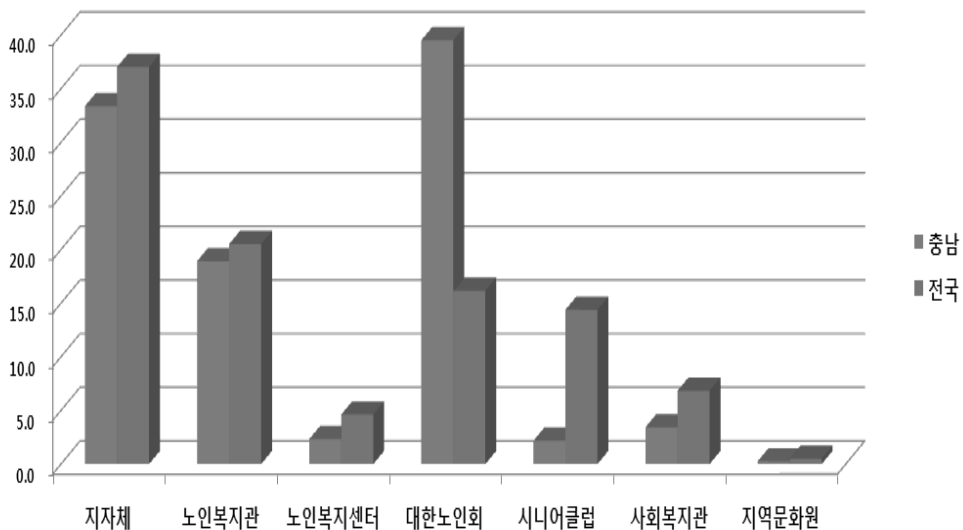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2. 사업수행기관별 실적

- 2010년 수행기관별 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충남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평균과 비슷하나 대한노인회의 일자리창출 비중이 전국(16.2%)보다 두배이상 높은 39.5%에 달함. 이에 비해 시니어클럽의 비중은 전국평균 14.4%에 훨씬 못미치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공익형 비중이 높고 민간형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음.

[표 8]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사업실적 비교 (단위 : 개)

도별	지자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지역문화원
충남	3,964	2,247	276	4,693	258	408	30
전체	74,457	41,258	9,278	32,498	28,931	13,751	979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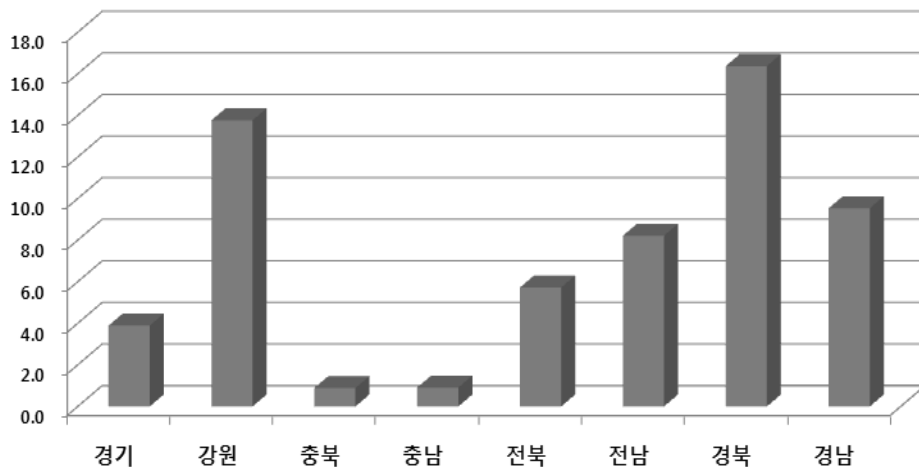
3. 국비미지원 일자리 창출실적

○ 2010년 국비미지원일자리(광역, 기초지자체 예산만 활용) 창출실적을
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충남도는 충북도와 함께 최하위를 나타내어
국비의존도가 높고 자체 예산 활용이 저조(의지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실적은 총 13,418개인데 이중 충남
도는 122건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도별 국비미지원 일자리 창출실적 (단위 : 개, %)

도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실적	522	1847	119	122	768	1102	2197	1279
비중	3.9	13.8	0.9	0.9	5.7	8.2	16.4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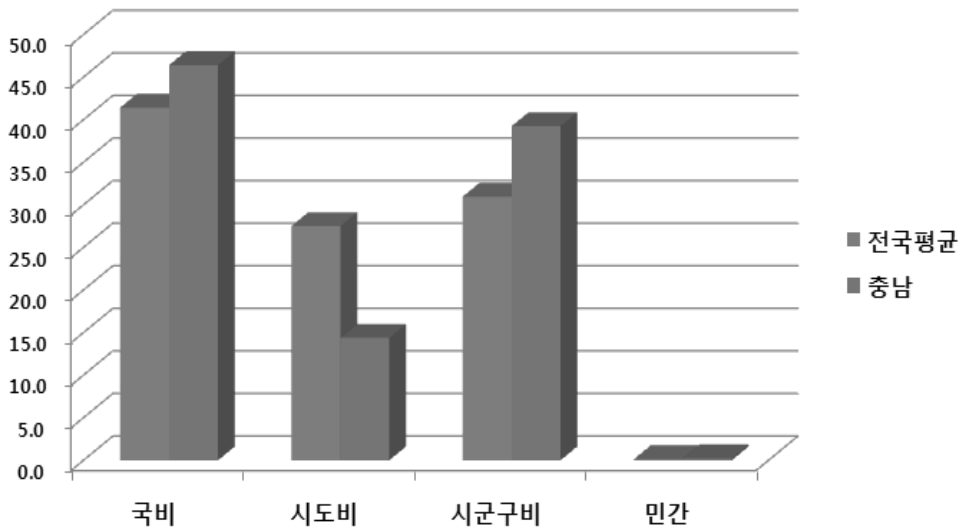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4. 예산집행 현황

- 2010년 예산집행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충남도는 국비의 비중이 전국평균(41.4%)에 비해 높은 46.4%로 나타났으며, 시도비의 비중은 충남이 14.4%로 전국평균 시도비 27.5%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시군비의 비중은 충남도가 39.2%로 전국평균(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 2010년 예산집행결과 (단위 : 억원)

	총액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전국	3,098	1,283	852	959	4
충남	181	84	26	7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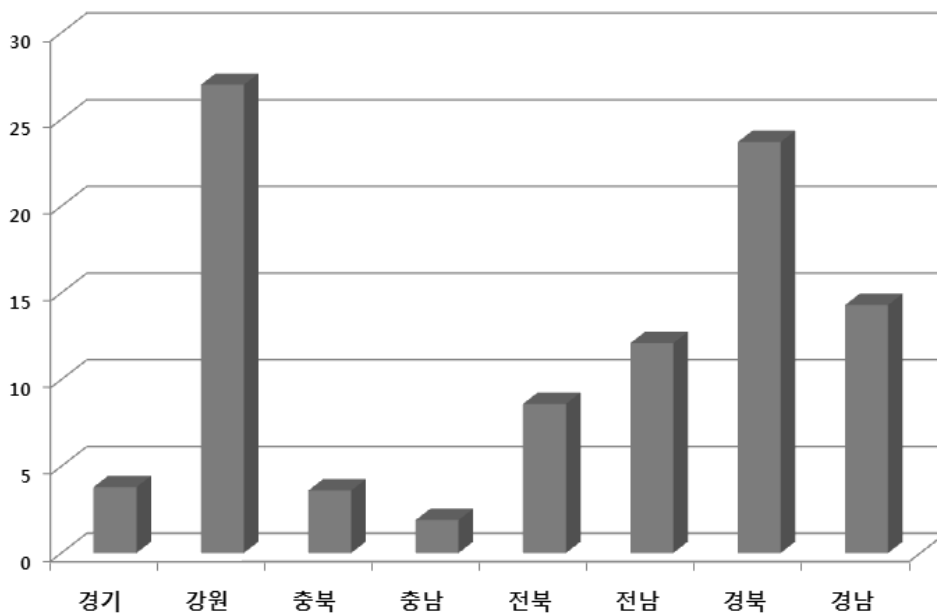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5. 국비미지원사업의 예산비중

- 2010년 예산집행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노인일자리에 투입한 지방비와 민간부담액 합계중에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업(시도비와 시군비로 사업)의 예산비중을 도별로 비교해 본 결과, 충남도는 8개도 중 최하위로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도별 국비미지원 사업 투입예산비중 (단위 :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국비미지원사업 투입예산비중	3.8	27.0	3.6	1.9	8.6	12.1	23.7	14.3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제4절 소결

1.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의 괄목할만한 성장

○ 이상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음.

-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1조 1,4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총 21만 6,44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거두었음.

- 하지만 노인들의 욕구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공돈'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발생하는가 하면 사회적일자리사업과의 유기적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음.

2. 농촌지역 정부노인일자리사업의 한계

○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만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함.

-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상 사업수행주체가 부족하고 일자리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등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공익형 위주의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에는 농촌공동체의 붕괴와 농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농촌공동체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사회의 조건하에서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노인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일자리사업으로 국한하기보다 농촌공동체 재구축, 지역농업농촌 혁신전략, 사회적일자리 창출흐름과의 연계속에 좀더 폭넓게 고민될 필요성이 제기됨.

3. 폭넓은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지향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마련보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노인일자리의 사례분석을 통한 유형화에 주안점을 두고자 함.

- 농촌공동체 재구축,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농업재편전략, 마을기업·사회적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커뮤니티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회적일자리 창출흐름 등과의 연계를 통한 농촌노인일자리 창출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임.

제3장 농촌노인일자리 면접조사

제1절 면접조사 현황

-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를 위한 면접조사의 수행결과는 아래표와 같음.

[표 12] 노인 일자리 면접조사 수행결과

구분	일시/인원	대상자
사업 수행자 심층 면접조사	10월~11월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혁범 : 영광 여민동락 노인복지센터장 ■ 유철환 : 완주 두레농장 위원장 ■ 윤정원 : 언니네텃밭 사무국장 ■ 박재홍 : 흥성 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 김영철 : 흥성 은퇴농장 대표 ■ 이선우 : 옥천 친환경 산계뜰영농조합 대표 ■ 서정훈 : 강화 콩세알 나눔센터 대표 ■ 이재국 : 서천 얼굴있는 먹거리 사무국장 ■ 홍진이 : 오산 잔다리 마을공동체농업회사 대표 ■ 이순희 : 보은 노인장애인 복지관장 ■ 강윤구 : 해남 좋은농부 마을기업 대표
농촌노인 표적집단 면접조사	10월~11월 농촌노인일 자리사업체 참여노인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 두레농장 ■ 김제 언니네텃밭 ■ 흥성 은퇴농장 ■ 흥성 노인회 영농작목반 ■ 강화 콩세알나눔센터 ■ 서천 할머니가 다듬어주신 우리농산물 ■ 보은 노인장애인복지관 ■ 해남 좋은농부 마을기업 ■ 원주 노인생협 클린콜 사업단

구분	일시/인원	대상자
전문가 자문 인터뷰	11월~12월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위원 : 광주 광산구 노인복지관 관장 ■배충진 : 전남 해남 송암선교복지원 대표 ■나영삼 : 전북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장 ■정기석 :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기업' 저자 ■김신양 :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남기철 :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대영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 차장 ■박태진 : 원주 노인생협 이사장

- 모든 면접조사와 자문 인터뷰는 응답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조정하는 열린 구조형태로 진행하였음.
- 사업 수행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사업 제반사항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면접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심층면접을 진행했음.
- 농촌 노인들에 대해서는 참여자들간 상호작용을 통해 노인들이 발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자리에 참가하는 사업장 단위로 표적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했음. 연구과정에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일하는 노인의 수가 소수이거나 불가피하게 집단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진행했음.
-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인터뷰는 전문가의 중점 분야에 따라 질문의 구성과 방향을 자유롭게 조정하며 진행했음.

제2절 사업수행자 면접조사 주요내용

1. 노인 일자리 사업수행의 배경

1) 농촌사회 부흥 및 자립적 공동체 구축을 위해 사업시작

- 농촌 지역 사업자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만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는 경우가 많았음.
- 두레농장은 그간 농업정책에서 소외를 받아온 중소농을 조직화 하기 위해 완주군 차원의 지역 먹거리 영역 개척 과정에서 다품목 소량생산체계를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음.
- 여민동락은 농촌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복지, 경제, 학교 살리기, 마을축제 복원 등 4대 영역에 대한 복합적 접근을 지향함. 주민의 자주성,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기반에 둔 농촌의 부흥과 복원을 목표로 함.
- 광산구 노인복지관은 도농복합형 광주 광산구를 전체 38만의 공동체 '투게더 광산'을 목표로 4만 명의 회원이 움직이는 나눔 공동체를 지향함.
- 산계뜰은 공동체를 이어나가기 위한 귀농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노인들이 이들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여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2) 주민들의 욕구로부터 시작

- 잔다리 마을공동체농업회사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업자가 오랫동안

동안 알고 지낸 주민들과 상의하면서 사업추진을 설득했음.

- 주민 공청회를 두 차례 열어서 뜻있는 주민 주주들을 모집하고, 12명이 공동으로 출자금을 마련하여 설립하고, 직원은 모두 마을 주민이 근무하고 있음.

○ 여민동락은 초기에 영광에 정착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마을 방역사업을 도맡아하며 지역 현황부터 파악하였음.

- 마을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아이들 등하교, 노인들 이동 및 심부름 대행, 마을방역사업, 학교 지키기 운동, 귀농귀촌 정보센터, 휴경지 임대, 영농사업단 운영 등을 진행하며 지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함.

- 이런 가운데 지역 특산물인 모시잎 송편의 사업화 가능성을 발견하고, 농사전문가인 노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떡공장 사업으로 발전시켰음.

3) 노인들의 자발적 요구로부터 시작

○ 횡성 종합사회복지관의 은빛 어르신대학 참여 노인들은 교육사업 외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소득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자체의 요구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시작함.

○ 광산구 노인 복지관은 노인주주 참여방식의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며, 사업자금 조달에서 시설설비, 운영에 이르기까지 노인 스스로에 의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음.

○ 원주 노인생협은 조합원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일자리가 필요한 조합원들이 많아지면서 '젊은이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복지 틀거리'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생협이 노인들에 대한 교육 및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고 있음.

4) 마을기업 경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인들을 고용하기 시작

○ 콩세알나눔센터는 사업자가 농촌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도 짓고 살아보려고 내려와 농업 농촌의 문제점들에 부딪히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는 방안과 노인들이 농촌에서 사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음.

- 처음에 네다섯 사람이 생산 공동체로 모여서 농사짓고, 함께 가공하고 판매하는 방향을 고민하면서 인근에 있는 여성 노인들과 더불어 일을 하게 되었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일할 수 있는 생산 공동체의 인원을 확충하게 되었음.

○ 해남 좋은농부 마을기업은 '얼굴있는 농사', '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마을 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고추 다듬는 일, 마늘 까는 일 등의 소소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음.

- 블로그, 페이스 북 등을 통해 '이 마늘은 옆집 할머니가 직접 깎 마늘입니다' 라는 생산과정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며 '얼굴있는 농사'를 지향함.

- 마을과 지역의 농산물 판매대행으로 판로를 안정화 시키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음.

5) 도시와 농촌을 지역 먹거리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

○ 언니네 텃밭은 ‘얼굴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의 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사업이며, 여성노인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여성 농민들이 농업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급적 생산 활동 기반인 텃밭을 운영하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여성농민들의 활동력을 높이려 하고 있음.

○ ‘얼굴있는 먹거리’는 대개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회원이며 직매장과 꾸러미 사업의 주요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향후 자연양계생산자조합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농촌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임.

2. 노인 일자리 사업수행의 어려움

1) 농촌 패배주의

○ 여민동락은 지역에 내려와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농촌에 팽배한 패배주의, 농촌에 대한 절망과 부정의 심리를 꼽았음.

○ ‘농촌에서 뭐가 되겠나’, ‘곧 죽을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나’ 라며 농촌현실에 대해 절망하는가 하면,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도시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다란 난관이었음.

2) 정부, 지자체의 인식 부족

○ 노인 스스로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재정투입을 우선하는 실적주의로 접근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됨.

- 지자체내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농업 담당부서, 노인복지 담당부서 등의 통합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고용자 노동시간 월 20일 하루 8시간 규정이 농촌 노동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시 정부 규정에 따른 제약들을 감수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3)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의 어려움

-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 실패한다면 공익형 수준 월 20만원 임금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사업자가 정부 지원 일자리를 대행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게 됨.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의 경우 수익 및 일자리의 안정성, 지속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업확장 방식, 정부지원 활용에 대한 입장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음.

4) 지역주체의 부재

- 일자리 사업 수행자들은 지역에서 소통하거나 일을 추진할 사람이 없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여김.
- 사업 수행자들이 단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귀농귀촌인들, 지역 활동가들, 새로운 주체 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팅, 네트워크, 교육사업을 강조함.

5) 농촌 노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농촌노인들은 전반적으로 정부 지원 일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문제의식이 있어도 잘 이야기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사업 수행자가 농촌 노인들의 요구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노인들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쿵으로 된장을 만드는 가공식품 사업방안이 노인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시도했지만, 노인들이 평생 해온 일이라 힘들다고 하고 싶어 하지않는 경우도 있음.

- 시장형 사업으로 음식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인들이 서빙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대신해 주는 상황도 발생함.

3.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언

1) 농촌공동체 재구축과 부흥을 목표로 해야 함

○ 노인 일자리 발굴은 농촌패배주의, 고령화 및 빈곤심화로 좌절된 농촌 지역사회의 재구축과 부흥을 목표로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음.

- 농촌 지역주체들이 좌절된 상태에서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농촌회생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역할은 재정투입 우선이 아니라 지역내 자치적 논의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함. 현행과 같이 재정투입 우선 방식의 일자리 창출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임.

2) 노인들 스스로의 일자리가 되어야 함

○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살리거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 자리를 만들어야함.

- 노인들 스스로 소득도 얻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남은 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함.

3) 노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선행해야 함.
 - 노인 욕구파악이 어렵다면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자조모임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마을간사를 지원하는 등 노인들의 자활적 모임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노인 일자리는 별도의 재교육 없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서 도 농사전문가로서의 자원, 인생의 경험을 활용 할 수 있는 방향 등 노동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함.
- 또한 ‘마을을 사랑하는 실버모임’ 등으로 청소, 환경 지킴이를 자발적으로 진행하거나 마을잔치 등에 문화공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임.

4) 노인들의 생활권에 기반을 둔 일자리가 되어야 함

- 마을단위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영농사업단, 마을기업 등을 통해 농사와 가공의 결합으로 마을단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농사는 노인과 청년이 함께 수행하고, 가공을 노인이 담당하며, 판매는 청년이 수행하는 방향이 가능함.
 -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 전승, 아이 돌보기, 해

외 이주민 지원, 가축 돌보기 등 마을 일자리를 지자체 및 정부가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함.

- 동네점빵, 마을택배, 심부름센터 등 주민들의 필요와 주민 발의에 의한 마을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노인을 고용하는 방식이 결합되어야 함.

5)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은 관리감독이 아니라 지원에 있음

- 현행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은 일자리 관리 감독 중심임. 그러나 이것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노인들의 욕구파악, 자조모임 지원, 사업주체 발굴, 초기 비용 지원 방식으로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자립을 목표로 하는 민간 일자리의 초기비용을 지원해서 마을단위 일자리가 될 수 있게 정착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됨.

6) 농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마을단위로 개발해야 함

- 노인들이 농사기반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경험 전수 등을 사회적 일자리로 만드는 등 유무형의 공익적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노인들이 귀농인에 대한 농사자문, 농사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이 가능함.
- 지역식당, 복지관, 영유아 보육시설 등 납품용 지역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두부 등 반찬류를 가공·판매하는 마을기업을 노인 일자리 사업자로 선정하고 지원해야 함.

제3절 농촌 노인 면접조사 주요내용

1. 일자리 참가 농촌 노인들의 특징 및 실태

○ 면접조사 대상 노인들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표 13]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사업장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동거여부	경제 상태	여가
충북 보은 노인장애인 복지관 노-노 케어 (3명)	남	65	팀장 (근속)	부부동거	퇴직 국민연금 수령	-
	여	68	텃밭 조금	사별, 독거	의료보험 사위보조	교회
	여	70	없음	남편 무직. 부부동거	자녀보조	교회
원주노인생협 클린콜 사업단 (2명)	남	72	팀장 (근속)	독거	퇴직이전 저축	생협모 임
	여	70	없음	남편 실직 부부, 손녀	자녀보조	교회
해남 마을기업 '해남좋은농부' (3명)	여	75	텃밭 조금	독거	자녀 보조	교회
	여	71	텃밭 조금	독거	자녀 보조	교회
	여	59	개인농사 인력파견 일 겸업	사별 시어머니 자녀 2	학생자녀 부양	교회

사업장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동거여부	경제 상태	여가
충남 서천 할머니가 다듬어주신 우리 농산물 (10명)	여	83	없음	독거	-	웃놀이
	여	82	없음	독거	-	웃놀이
	여	80	없음	독거	-	웃놀이
	여	70	텃밭조금	부부동거	자녀보조	교회
	여	72	텃밭조금	부부동거	자녀보조	교회
	여	79	텃밭조금	부부동거	자녀보조	교회
	여	67	텃밭조금	부부동거	자녀보조	교회
	여	70대	텃밭조금	독거	자녀보조	-
	여	70대	텃밭조금	독거	자녀보조	-
	여	70대	텃밭조금	독거	자녀보조	-
대한노인회 홍성군 지회 시장형(영농작 목반) 일자리 참가 노인(3명)	남	70대	개인농사, 공동작업	-	-	-
	남	70대	개인농사, 공동작업	-	-	-
	남	70대	개인농사, 공동작업	-	-	-
홍성 은퇴농장(1명)	남	70대	공동작업	독거	-	-
완주 두레농장(1명)	남	60대	개인농사 공동농사	부부동거	자립	-
김제 언니네 텃밭 (3명)	여	70	개인농사, 공동작업	독거	자립	교회
	여	55	개인농사, 공동작업	부부동거	자립	교회
	여	69	개인농사, 공동작업	독거	자립	교회
강화 콩세알 나눔센터 (4명)	여	65	개인농사, 농민식당 서빙	독거	자립	교회
	여	69	개인농사, 농민식당 서빙	부부동거	자립	교회
	여	58	개인농사, 두부가공	부부동거	자립	교회
	여	62	개인농사, 두부가공	독거	자립	교회

1) 경제적 빈곤

○ 농촌 노인들은 생활비 부족이 만성화 되어 있음.

- 기초노령연금 7~9만원 돈 외에 고정 소득이 없어서 거의 안 먹고 안 쓰는 생활을 기본으로 함.

- 하루 종일 마을회관에서 살고, 석유를 아끼기 위해 전기매트로 살아도 한 달에 난방비 25만원, 전기세 등 세금 10만원, 먹거리는 채소 등 텃밭에서 조달하면서 쌀값 수준정도만 써도 최소 40만원이 필요함.

- 의료비는 일반진료 1500원, 평균약값 1500원 정도인데 비해, 먼 소재지 병원에 가는 교통비가 1회 평균 3000원 이상이 소요됨. 대다수 노인들이 난방비 외에 한 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생활비 품목으로 월 평균 5만원~1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꼬고 있음. 교통비 때문에 병원 가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큰 병이라도 진단을 받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

- 경조사비는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필요하고, 교회 등 사람들과의 교제비, 손자·손녀 용돈을 위한 용돈별이 등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함.

○ 농촌 노인들은 대부분 도시에 나간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가족 지지체계가 약함.

- 부모세대는 사는 것이 힘들어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으나, 자식들도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없음.

- 자녀 세대가 보험료, 용돈 등을 비정기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의존해서 사는 노인들이 다수임.
- 노령에도 불구하고 텃밭 농산물을 자녀에게 지원하며 살고 있거나 자녀들의 도움이 전혀 없는 노인들도 상당수 있음.

2) 여성 노인의 어려움 가중

- 남편과 사별 후 고독감이 가장 큰 어려움이며,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가정 및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음.
- 남편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서 가장이 된 여성이 많아 독립적인 재산을 거의 마련하지 못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소외되어 있음.
- 남편 생전에는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던 집 및 가전제품 수리 등에 새롭게 비용이 드는 일이 많아짐. 가전제품 수리비는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에게 큰 부담이 됨.

3)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어려움

-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큰 빨래와 장보기 등 많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려움.
- 방문 도우미가 큰 빨래 등은 해주지만 도우미가 1주일에 한 번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기본적인 것 외에는 더 요구하지 않음.

4) 건강문제

- 노인들 대다수가 여러 가지 병세를 종합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병원에 거의 날마다 다니는 노인들이 많음.

5) 주거문제

- 도시와 달리 집 소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가 더 큰 문제임. 가족들이 있다면 관리비용이 덜 들지만 관리 보수할 사람이 없어서 집 고치는데 예상치 못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함.

6) 정서적·심리적 문제

- ‘빨리 죽어야지’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네’ 등 자신을 죽음에 가까운 단계로 여기며 체념하는 경우가 많음.
- ‘놀 수는 없는데 할 일이 없어서’, 잠념이 많아져 시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7) 사회적 지지 체계 문제

-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방문 도우미 등의 지원 인력이 거의 유일한 사회적 관계인 경우도 많음. 보건소, 복지관 등 서비스, 문화, 교육에 대한 접근은 읍/면에 몰려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고, 마을방문 서비스, 교육, 문화행사는 일시적임.
-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모여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일거리가 사회적 관계를 다시 연결 시켜줌.

8) 여가생활

-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주로 TV를 보는 것이 대부분의 여가이며, 마을 공동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함께 밥 해먹기, 옷놀이, 화투 등으로 소일 함.
- 주말은 동네 사람들과 교회 가는 노인들이 다수이며, 교회에 가지 않는 노인들은 특별한 여가가 없는 경우가 많음.

9) 노후준비

- 노인 일자리는 현재의 소득 부족분을 겨우 충당하는 수준이거나 실질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는 소일거리 수준이 대부분임.
- 대부분이 노령연금, 의료보험 정도로 최소한의 혜택만 받고 있으며, 별도의 노후 대책이 없음.

2.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

1) 일자리의 양적 질적 확대 및 지속성 보장

- 노인들은 생활비 부족이 만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소일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원하고 있음. 그러나 일자리 수요에 비해 일자리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노인들이 연령·성별·경험 등 자신의 욕구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대되기를 기대함.
- 농번기에는 파견 일들이 많지만 농한기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기간에 따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 및 성별에 상관없이 노인들이 1년 내내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65세 미만은 농번기에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편이지만, 65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노임이 적거나 거의 일자리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인력 파견, 공동작업 등 생산형 노동 대부분이 남성 노인 일자리가 중심이 되어, 대체로 여성 노인들은 남성 노인들의 작업을 보조하거나 밭농사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음.

- 농사를 평생 업으로 살아온 노인들은 가능하면 농사기반을 유지하거나 자기 힘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마을에서 농사를 함께 짓는 젊은이들이나 공동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논밭을 내놓거나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반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

- 평생 고된 노동을 해온 노인들은 힘든 농사를 벗어나서 덜 힘든 일을 해보고 싶어 하기도 함. 이러한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연륜을 전승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하지만 도울 수 있는 교육이나 지원체계가 거의 없으며, 노인들을 고용하려는 수요 또한 찾기 어려움.

○ 노인들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함.

- 마을기업, 생협, 복지관 등 사업체의 사업재정이 부족해지면 노인들이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일자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음.

2) 최저 생활보장

○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최저 생계비 40만원 수준에서라도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가능하기를 기대함.

-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7~9만원 외에 고정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다수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소득이 생기는 대로 쓰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음.

3) 근무조건 개선

- 정부 노인 일자리인 쓰레기 줍기 등의 경우에 일자리가 거의 관리되지 않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노인들 스스로도 흥미를 못 느끼며, 일자리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마을이나 환경을 지키는 노인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함.
- 민간 사업자의 노인 일자리 경우에는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수준이 턱없이 부족해 농산물 다듬는 일 등은 하루종일 노동으로 만원 벌어도 힘들지만, 마을기업의 재정상황도 어려워서 임금보장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보조해 주기를 기대함.
-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는 노인들이 사는 곳과 일자리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아서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실질 임금소득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교통비가 감안되어야 함.
- 동네 아는 어른을 돌보는 일자리가 끝났다고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서 자기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서라도 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복지형 일자리는 특히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함.

4) 여성 노인 일자리 선택의 다양성 보장

- 여성 노인의 경우 육아, 농사 등의 과중한 부담을 져왔으나, 자신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 노인에 비해 재산상태가 더욱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함.

- 농촌에서는 다수의 독거노인들이 여성인데 비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독거 여성노인들의 생활조건이 특히 취약함.
- 여성 노인들의 연령대,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됨.
 - 여성 노인들은 교육기회, 사회참여 등에서 남성보다 더 박탈된 채 남편과 사별하거나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되어 뒤늦게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경우가 많아 경제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함.
 - 여성 노인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어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사와 도움체계가 더불어 추진되어야 함.
- 지역 가공사업, 해외 이주여성 지원 등 새로운 사업발굴에서 여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며, 배움, 놀이, 사회적 활동, 관계 확대 등에 대한 여성노인의 욕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함.

제4절 전문가 인터뷰 주요내용

1. 노인 일자리의 문제점

1)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

○ 공익형 일자리는 공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주요 민원대상이 되고 있고, 용돈살포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

- 년초 사업신청시 사업수행기관이 타업무를 볼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대표적인 일자리인 환경미화(쓰레기 줍기)의 경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줍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폐해도 나타남.

- 담당공무원은 일자리 창출과 기획 보다는 관리·감독의 행정업무에 치중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차라리 노인들에게 1년에 140만원 주는 게 낫다는 자조적 평가들이 많음.

○ 또한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이 공익형 일자리를 정치적 권한으로 활용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음.

- 지자체의 경우 월 20만원을 개별 노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놓치지 않으려 하며 손쉬운 공익형 일자리사업만 하려하고 민간 자율적인 시장형 사업 활성화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음.

- 공익형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노인회의 경우에도 사업권 확보여부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 노인회 간부진의 정

치적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작용하기도 함.

○ 당초 일자리사업 계획과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당초 공익형 사업은 노동력이 떨어지고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시장형 사업은 인적자본이 높은 수준의 어르신을 위해 생계비 보조차원에서 추진하였으나 시장형 일자리의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자 공익형으로 몰리고 있음.

○ 공익형 사업단은 교육형, 복지형만 할 수 있고, 시장형 사업단은 시장형사업만 하도록 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함.

2) 농촌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의 문제

○ 농업농촌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전략없이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집행에 따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우후죽순처럼 사업이 추진 되고 있음.

○ 지속가능성과 자립적 경영을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권역별 지원기관이 1개씩 선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시군단위 현장에 맞는 컨설팅 역량이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교육만 몇회 실시하는 정도 수준임.

○ 사회적 기업의 조건이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매일 8시간씩 정규직 노동자처럼 출퇴근을 해야 하는 등 농촌 실

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사업 경영을 함에 있어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고 정부 보조금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음.

○ 사회적 일자리 사업 선정에서 정량평가의 문제로 지역의 욕구에 기반하고 지역의 필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척도가 미비함.

3) 기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농촌지역에 쓰여지고 있으나 일자리와 마을 소득창출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결국 유희시설로 전락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진행중인 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과거 2억원 정도 지원되던 행정리 중심의 마을 개발사업과 달리 5~6개 마을을 묶는 50~70억 규모의 대형사업인데 좋은 시설만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하드웨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2. 노인 일자리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1) 농촌공동체 복원, 농업농촌 활성화를 지향해야 함.

○ 농업희생, 농촌활성화, 농촌공동체 복원을 위한 방향과 전략속에 노인일자리 창출방안이 고민되어야 함. 농민이 살고 주민이 살고 농업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함.

2)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함.

-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일자리창출만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영역, 지역발전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함.
- 중소고령농을 위한 지역농업재편전략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지금까지 지역농업의 주를 이룬 것이 시장지향형 상업농이었다면, 로컬푸드 생산-소비 영역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지역농정 전반에 걸쳐 생산과 유통의 간극을 줄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높여나가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임.
 - 로컬푸드 영역의 개척에서 핵심은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는 중소 가족농을 조직화하는 것이고, 시장규모에 맞추어 다품목소량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이를 위한 거점 생산조직으로 농촌노인일자리가 자리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개별소비자간, 생산자간 연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와 농촌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학교급식, 공공급식, 기업급식 공급, 도시락사업 등 생산과 소비, 유통을 조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함.
 - 이런 시스템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곳에서 농촌노인들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현재 민간자율적인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기획, 창

출, 지원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이 있으나 행정업무과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일자리 사업단을 조직하고 단계별로 육성해야 함.

- 마을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원을 규모화하는 것이 중요함.
 - 20만원짜리 일자리 몇 개하는 모자이크식 개별사업이 아니라 마을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여기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민관합동, 또는 민간자체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기에 자원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자리 지원도 여기에 하는 것이 필요함.
 -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복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업, 사업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수행기관에 일괄지원하는 것 보다 사업단별로 지원해야 함.
- 사업조직을 단계별로 육성해야 함.
 -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의 경우 처음부터 마을기업화 하기 어려우므로 공모를 통해 마을만들기, 마을가꾸기 사업을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을때 주민들이 직접출자하고 지자체도 일부 지원하는 마을공동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함.
- 시니어클럽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은 경영체의 초기인큐베이팅을 담당하고, 사업조직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는 유통망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4)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복원의 유력한 방도이자 노인일자리의 주요수단임.

○ 마을 기업은 마을주민들이 마을에서 창업해서 돈을 벌어서 마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기업을 말함.

○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려면 1차산업 전문가인 농민과 2차산업을 아는 젊은이가 결합되어야하는데, 기존에는 2차산업을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담당하였으나 그 한계가 많았음.

- 농사를 잘 아는 마을 어르신들이 협동농사로 친환경 영농을 맡고 기획, 관리, 마케팅, 생산가공, 정보화 등의 업무는 도시에서 그 일을 주로 하며 살아 온 귀농인이 맡아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임.

○ 사업에 있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아니라 법인격이 주어져야 함.

- 기존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으나 몇명 이름만 형식적으로 걸면 만들 수 있어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았음. 따라서 마을기업이라는 형식을 띄는 것이 책임성도 담보하고 마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함.

○ 노인들의 생활권이 마을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해야 함

- 이동수단의 제약, 교통편의 부족으로 인해 노인들의 이동권이 사실상 제약되어 있기 때문임.

- 노인들을 마을에서 원거리로 이동시키면 마을 공동체에서 역소외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마을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함.

5) 농촌 노인 일자리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

○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함.

- 현행 농촌노인 일자리 사업은 도시 일자리 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음.
- 농촌에서는 월 20만원 수준의 일자리라도 노인들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동일 재원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도시보다 더 높을 수 있음.
- 현재 읍/면/동 일자리 사업은 시간과 비용 제약이 크지만, 도시만큼 일자리 선택의 다양성은 없음.
-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일자리사업, 농촌개발사업 등 다양한 농업농촌 사업들과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농촌사회에 잘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함.

○ 농촌 노인들의 인구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야 함.

- 한국전쟁 전후세대, 중졸이하 80%,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이 없는 65세 이상이 다수인 노인들의 인구적 특성을 반영해야 함.
- 평생 고된 노동으로 살아온 농촌 노인들에게 놀이같은 일자리, 삶의 경험을 전승할 수 있는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가 개발 되어야 함.

- 삶의 영역에 있는 노인들이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개발되어 죽음의 영역으로 향하는 과정을 지연시키고 농촌지역 사회가 돌볼 수 있어야 함.

6) 지속가능, 자립형 일자리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하지만, 현행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자립형 일자리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함.

7) 기타

-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런식의 구분이 아니라 사업유형별로 섞일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함.
- 농촌형사회적기업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 개선책이 필요함.
-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각종 교육을 귀농인, 농민, 조합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려는 인구가 늘고 있으나 이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농업농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책은 부족함.
- 일자리의 목표가 농촌활성화, 공동체 복원에 있다면 일자리형태도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층이 함께 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함.

제4장 농촌노인일자리의 특징과 실태

제1절 노인일자리의 일반적 특징

1. 노인의 일반적 특성¹⁾

1) 풍부한 인생경험

○ 한정란(2011)에 따르면, 노인들은 오랜 삶의 경험으로부터 지혜와 인내를 얻었으며 인간삶에 대한 이해와 인생의 난관들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었음. 그런 면에서 노년기는 삶의 여정속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음.

○ 노인들의 삶의 경험은 젊은 세대가 흉내 낼 수 없는 것들이며, 그런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혜와 깨달음은 삶을 대가로 한 것들이어서 젊은 세대들은 가질 수 없는 것임. 노인은 전생애를 경험하였고, 인간의 전생애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연령임.

○ 따라서 이러한 노인의 능력과 인생의 풍부한 경험은 사회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음.

2) 일자리, 취미, 생활 영역의 유기적 연결관계

○ 한정란(201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년기 이전까지는 생활영역, 직업영역, 자원활동영역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됨. 즉 한 영역에서의 성공이 다른 영역의 실패를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영역에만 몰두하여 만족감을 얻는다면 다른 영역에서 실패하더라

1) 한정란(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교수가 제17차 노인일자리전문가포럼(2011.8.24)에서 발표한 ‘노인인적자원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에서 발췌함.

도 삶의 만족감이나 삶의 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하지만 은퇴함으로서 직업에서의 성취감이나 긴장감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자녀양육의 책임감이나 가사의 부담이 사라진 노년기의 삶은 일자리, 가사,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생활의 각 영역이 뚜렷한 구분없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됨.
- 따라서 노인일자리 참여가 경제적인 효과 뿐 아니라 건강증진과 심리적인 만족, 사회적 관계 개선 등 노년기 삶의 영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

3) 욕구나 동기의 다양함

- 한정란(2011)에 따르면, 노년기는 유전적인차이에서 나타난 개인적 차이에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축적된 학습과 경험, 습관, 태도, 사고, 가치관 등의 차이가 합쳐짐으로써 인생의 단계 중에서 가장 개인간의 차이가 극대화된 시기임.
- 노인집단 내의 다양성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론이고 욕구나 동기면에서도 다양한 차이를 나타냄. 따라서 노인은 교육수준, 생활수준, 건강수준 등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와 동기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참여하게 됨.
- 따라서 다양한 욕구와 동기 그리고 특성을 가진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2. 노인일자리 특징

1) 노인 문제 해결의 주요 방안

- 노인일자리는 노인 4대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빈곤’, ‘질병’, ‘역할없음’, ‘고독’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통해 소득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건강증진이라는 다양한 효과도 창출하고 있음.
- 노인인력개발원 실태조사결과(2011)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겪은 가장 큰 변화는 급여의 경제적 보탬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 다음으로는 건강상태 호전(13.1%), 사회활동 참여 증가(11.5%), 인간관계 호전(10.5%) 등이 높게 나타남.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차 적인 경제적 목적 달성외에 부차적인 다양한 효과들을 함께 수반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음.

[표 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변화(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실태조사결과)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가족관계 개선	2	16	713	401	83	1,215
	0.2	1.3	58.7	33.0	6.8	100.0
경제적 보탬	8	44	219	858	371	1,500
	0.5	2.9	14.6	57.2	24.7	100.0
건강상태 호전	1	30	624	690	155	1,500
	0.1	2.0	41.6	46.0	10.3	100.0
인간관계 호전	0	6	598	752	144	1,500
	0.0	0.4	39.9	50.1	9.6	100.0
사회활동 참여증가	1	23	587	744	145	1,500
	0.1	1.5	39.1	49.6	9.7	10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2) 노인복지사업으로서의 성격

○ 송진영(2011)에 따르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노인일자리는 은퇴 후의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에 있어 가장 좋은 복지 대책이 되고 있음.

○ 또한 남기철(2009)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목적적 측면에서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녕(wellbeing)의 증진이라는 점과 관련되며, 수단적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인적 자본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노인에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창출될 수 없는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지적 개입의 추가노력’을 의미함.

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동력으로서의 취약성

○ 낮은 교육수준

- 아래 실태조사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중 초졸의 학력자가 전체의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무학의 비율이 23.7%로 높게 나타남. 글자모름 6.9%, 글자해독 가능 16.8%. 이를 합하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60.0%가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학력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수 있음.

[표 1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교육수준(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실태조사결과)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전체
인원수	103	252	545	232	226	7	1,500
비중(%)	6.9	16.8	36.3	15.5	15.1	1.9	1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 하루 8시간 정규노동의 어려움

- 아래 실태조사결과표에 따르면 참여노인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태는 주5일 하루 몇시간만 근무하는 형태를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1.3%는 주중 2~3일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령에 따른 노동력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음.

[표 16] 선호하는 일자리 형태(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실태조사결과)

구분	빈도	%
주5일, 하루 몇시간만 근무	643	42.9
주5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164	10.9
주중2~3일, 하루 몇시간만 근무	619	41.3
주중2~3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27	1.8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	1	0.1
일수, 시간에 구애 받지않고 근무	46	3.1
합 계	1,500	1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4) 높은 취업욕구

○ 노후준비의 미흡

- 현재 고령층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전쟁 전후 태어난 노령세대는 윗세대를 받는데 희생하였으며 아랫세대를 부양하는데 헌신하였

으나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미흡한 상황임. 사회적 보장체계가 미흡한 가운데 자녀로부터의 부양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적극적인 취업요구

- 매년초 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는 일자리 신청경쟁이 치열하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일자리 요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래 실태조사결과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은 상당수가 60세 이상에 이른후에도 적극적으로 수입을 목적으로한 일자리를 구하였고 이들 가운데 다수의 노인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구직에 성공함. 참여노인의 40%정도는 60세이상 연령에서도 구직활동을 계속 하였고 구직활동을 한 노인중 46.8%는 일자리를 찾았거나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구직노력 및 구직성공경험(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실태조사결과)

구 분		빈도	%
적극적 구직활동 경험 여부	유	598	39.9
	무	902	60.1
	합계	1,500	100.0
적극적 구직활동 성공 여부	유	280	46.8
	무	318	53.2
	합계	598	10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제2절 농촌노인들의 일반적 특징과 일자리 실태

1. 농촌노인들의 일반적 특징

1)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빈곤층이 늘고 있다

○ 노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노후대비보다는 주로 자식들의 교육, 결혼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왔으며, 특히 농촌노인들은 자녀들을 교육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진출시켜야 하므로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옴.

- 절대 빈곤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인 가구당 월 49만 845원, 6인 가구는 월 181만 7,454원)에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의 비중인 농가의 빈곤율 분석²⁾ 결과 2004년에는 9.1%였으나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9년 19.6%로 절대빈곤층이 농가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빈곤층의 대부분은 노인들인 것으로 추정됨.

[표 18] 농촌 빈곤농가의 비율 (단위 : %)

	빈곤농가	비빈곤농가	전체
2004년	9.1	90.9	100
2005년	14.9	85.1	100
2006년	13.6	86.4	100
2007년	15.4	84.6	100
2008년	17.5	82.5	100
2009년	19.6	80.4	100

※주 : 통계청의 농가경제 표본농가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자료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2010

○ 박대식(2009)³⁾이 전국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

2) 통계청의 농가경제 표본농가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3000여 표본농가 중 농가소득이 가구당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를 조사하여 계산함.

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한데 따르면,

- 연간 가구 총소득은 평균 828만원이고, '1,000만원 이하'가 63.4%로 나타났으며, 가장 부담이 큰 지출 항목은 주거비(34.6%) 및 보건·의료비(27.5%)였고 노후생활을 준비해온 응답자는 13.2%에 불과했음.

- 전체 응답자의 11.0%가 현재 비농업분야에서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농외 경제활동의 주된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83.6%)였음.

○ 한편 본 연구과정에서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최소생활비용(난방비, 전기료, 전화료, LPG가스, 경조사 등) 만 40여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경조사비 지출규모로 인해 생활비용이 좀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2) 농사만큼은 박사급이다

○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 따르면, 80세 고령의 노인들도 마을에서 동네 어른들과 함께 소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특히 평생 업으로 삼아온 농사전문가이다보니 영농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특히 고령인 경우에도 혼자서는 농사일 하기가 힘들지만 협동농사, 공동농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박대식(2009)이 전국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한데 따르면, 고령농의 경우에도 영농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3) 박대식,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사회학회, 2009

- 농촌노인의 농사일 참여정도에 있어서는 도시 인접 및 중산간 농업지역, 남성, 노인부부가구, 65~74세 연령층,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영농 참여도가 더 높았음.
- 65세이상 농가노인의 86.7%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농가 노인의 73.4%도 과거에는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농사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83.3%는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짓겠다'고 응답하였고, 도시 인접지역, 65~74세 연령층, 만성질환이 없는 응답자일수록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음.

3) 도시 노인보다 교육수준이 훨씬 낮다

-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농촌지역 고령자의 교육수준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박대식(2009)이 전국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한데 따르면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무학 451명(45.1%), 초등학교 졸업 377명(37.7%) 중학교 졸업 110명(11.0%), 고졸 이상은 59명(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아래 실태조사표에 따르면, 무학의 비율이 동지역은 19.7%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36.3%로 두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글자모름 동5.1%, 읍면12.5%). 또한 초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은 동지역이 55.1%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70.7%에 달했으며 중졸이하 학력도 동지역이 71.1%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8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고령자의 교육수준이 도시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교육 수준 조사(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실태조사결과)

	무학 (글자모름)	무학 (글자해독)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전체
읍	10.8	27.7	33.8	11.5	12.2	4.1	100.0
면	13.7	21.0	43.4	15.1	5.4	1.5	100.0
읍면합계	12.5	23.8	39.4	13.6	8.2	2.5	100.0
동	5.1	14.6	35.4	16.0	17.2	11.6	10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4) 만성질환 한두개씩은 달고 산다

○ 대부분의 농촌 노인들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경희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노인들의 91.9%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농촌 노인도 5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농촌진흥청 조사(2008년)에 따르면, 농민들의 근골격계 질환은 농업인(62%)이 비농업인(25%)의 2.4배 수준이며, 농부중은 전체 농민의 36.2%, 비닐하우스 증후군은 18.8%, 농약중독율은 면지역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5) 노인단독세대, 특히 여성독거노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 노인혼자 또는 노부부끼리 사는 노인단독세대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이같은 추세는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지는데 박대식(2009)의 65세 이상 농촌노인 1000명에 대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528명(52.8%), 사별 466명(46.6%), 별거 또는 이혼 4명

(0.4%) 등으로 나타남.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359명(35.9%), 노인부부 439명(43.9%), 자녀 동거 190명(19.0%) 등으로 나타남.

○ 여성독거노인 비중의 확대

- 독거노인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2005)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비중은 30.8%이고 독거노인은 16.2%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농촌의 남성독거노인이 34.2%, 여성독거노인이 45.0%로 도시에 비해 1.5배에서 2배정도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독거노인은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나 신체질병에 대한 보호나 간호, 정서적 유대감 형성 등 부양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못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2. 농촌노인일자리의 실태

1) 일자리라도 없으면 TV보고 화투치는거 외에 할게 없다

○ 평생농사만 지어오신 농촌노인들의 경우 독서 등 다른 취미를 갖고 있는 경우도 별로 없음. 또한 교통편 등 이동수단의 제약으로 도시노인처럼 다닐곳도 마땅치 않음.

○ 따라서 소일하면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영농작업이나 특별한 교육없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라도 없으면 집에서나 경로당에서 TV 보거나 화투치는 거 외에 할 일이 없다는 게 농촌노인들의 하소연이었음.

2) 특히 농한기에 할 일이 없다

- 개인농사도 10월이면 끝나고 공익형 일자리도 대개 10월, 11월이면 마무리되는데 농한기에는 더욱 할 일이 없음.
- 영농사업과 연계된 소규모 가공산업이 생기면 농한기에도 일거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콩 농사를 짓고 청국장, 된장을 만들거나 찹쌀, 깨 농사를 짓고 겨울에 강정을 판매하는 등 영농사업과 가공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임.

3)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좋다

- 교통편 등 이동수단의 제약에 따라 마을단위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에서 소일하며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선호가 높음.
- 남성노인들의 경우 그나마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면단위까지 이동하기도 하지만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수단이 더욱 부족하여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4) 월 10만원만 벌어도 일하는게 낫다

- 본 연구과정에서 수행한 면접조사에서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그리고 일자리 참여 노인들 모두 일자리 참여에 따른 만족도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높은 편이었음. '나라에서 한달에 20만원 주는게 어디냐'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음.
- 또한 면접조사시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들에 따르면 '정부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하며 연초 사업대상자 선발시 복지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함.

○ 마을 노인들께서 매일 경로당에 나와서 점심을 해먹는 경우가 많은데 부식(쌀 등)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노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영농작목반을 꾸려 임대농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이는 식비 마련 뿐만 아니라 소일거리라도 있어야 보람도 있고 건강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었음.

- 홍성의 경우 정부 지원금(시장형노인일자리) 포함해서 15명의 영농작목반원이 한달에 10만원씩 용돈 벌이하는 수준인데 그래도 계속 하겠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일에 대한 요구가 강하였음.

5) 혼자서 못해도 협동하면 가능하다

○ 영농작업의 경우 혼자하기에는 힘들어 젊었을때처럼 할 수는 없지만 노인들이 협동해서 하면 가능하고 재미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 한창 일할때의 1/2 정도의 노동력을 투여하는 수준 정도가 적당하며, 이럴 경우 15명(평균연령 74~75세)의 노인이 논 4,000평, 밭 2,000평 정도는 영농가능하다는 의견이었음.

6) 역시 판로하고 가격이 문제다

○ 영농작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이와 연계한 소규모 가공식품 생산도 농촌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작업장이나 솥, 용기 등 간단한 시설만 구비해준다면 농촌노인들 스스로 메주, 두부, 강정 등 가공식품 생산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문제는 판로하고 가격임.

- 영농작업을 통해 농산물 생산을 하려해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고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 가공식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학교급식, 생협 등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나 도시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판매처를 확보한 경우는 다행이지만 판로와 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면 영농사업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제3절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의 특수성

1. 노인일자리 여건의 취약

- 영농철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현상으로 65세 미만의 중고령층의 경우는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일자리 관련 여건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은 농촌일자리 사업수행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도시에 비해 일자리의 다양성이 떨어지며 특히 민간 영역의 사업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특히 75~84세의 후기고령자들과 힘든 농사일 하기에 어려운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같은 사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이 농촌형 일자리 창출에 기반을 두고 있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 수행한 면접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농촌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들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래 실태조사결과표에 따르면, 읍면 지역은 공익형비율이 각각 62.2%, 67.3%로 높았는데, 동 지역은 공익형 비율이 41.0%로 낮은 반면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참여자 비율이 읍면 지역에 비해 높았음.
 - 또한 읍면 지역은 지자체, 대한노인회 소속 비중이 높았고 동 지역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소속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농 지

역별 인프라의 특성을 여실히 알 수 있음. 공익형의 주 수행대상은 지자체, 대한노인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20] 거주지역별 분포(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실태조사결과)

		읍	면	동	전체
사업 유형	공익형	62.2	67.3	41.0	46.7
	교육형	6.8	8.3	15.1	13.3
	복지형	24.3	16.6	20.1	20.0
	시장형	5.4	4.4	11.6	10.0
	인력파견형	1.4	3.4	12.3	10.0
기관 유형	지자체	31.8	52.2	19.1	24.9
	노인복지관	16.9	7.3	26.2	22.7
	노인복지센터	1.4	4.9	2.8	2.9
	대한노인회	21.6	22.0	12.6	14.7
	시니어클럽	8.1	6.8	20.3	17.3
	지역문화원	0.7	0.0	0.4	0.4
	사회복지관	8.1	4.4	9.5	8.7
	기타	11.5	2.4	9.2	8.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2. 생활권의 분산과 이동수단의 제약

○ 지역은 노인들이 평생을 살아온 곳이자 남은 생을 의미있게 마쳐야 할 곳이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남은 생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하지만 농촌지역의 열악한 도로 및 교통여건은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되어 농촌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농촌노인들의 생활권을 고려한 일자리가 필요함.

- 따라서 읍단위에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보다 면단위, 마을단위에 작은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농촌노인일자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대부분의 면접조사에서 농촌노인들의 경우 마을단위 일자리를 선호하였으며,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도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면단위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상 문제가 존재한다는 의견이었음.

○ 또한 남성노인들의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여성노인들의 경우 이동수단이 부족함에 따라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3.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 농사일 자체가 계절적 주기를 갖게 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도 변화가 발생함.

○ 대부분의 면접조사에서 특히 겨울철 농한기에는 일할 수 있는 겨리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음.

- 농촌의 대표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영농작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익형의 경우도 10월, 11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농한기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임.

- 가공산업의 경우에는 농산물이 수확되는 시기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절적 영향이 적은 편임.

- 따라서 영농작업과 가공산업의 연계를 통해 농한기에도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농촌공동체 존립의 위기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주체의 부재

○ 심각한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

- ‘애기 울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농촌사회는 심각한 고령화속에 공동화현상이 발생한지 이미 오래되었음.
- 2009년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인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업인 열명 중 한명은 농촌에 살기를 원치 않으며, 상당수 농업인들은 떠나고 싶지만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계속 농촌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복지기반인 교육 및 의료여건도 열악하다보니 농촌공동화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패배의식의 만연

- 본 연구 수행시 면접조사에서 한 사업담당자는 농촌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말함.
- ‘현재 농촌은 잘나지 못해 도시로 떠나지 못한 사람과 도시로 갔다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새롭게 무슨 일은 시작하려해도 해봐야 안된다는 패배의식이 많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주체의 부재

-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경영체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농촌지역내 주체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 외적으로 귀농인력의 증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신뢰속에 농업농촌 회생을 지향하는 기업조직 육성 주체가 부족함.

제5장 농촌노인일자리 사례분석

아래표와 같이 총 12가지 농촌노인일자리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사례 10(보은, 해남, 홍성)의 경우 성과가 미약하거나 실패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여서 기타로 정리하였음.

[표 21] 농촌노인일자리 사례

- 사례1. 완주군 두레농장 - 지역농업 재편전략속에 로컬푸드 생산 거점역할
- 사례2. 영광군 여민동락 할매손 - 농촌공동체 복원과 부흥을 목표
- 사례3. 언니네 텃밭 - 여성농민이 주도하는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
- 사례4.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손맛사업단 - 어르신들 자발적 참여와 운영
- 사례5. 홍성군 은퇴농장 - 고령농민과 도시은퇴자의 상생모델
- 사례6. 옥천군 산계들 친환경영농조합 - 농촌노인 · 귀농인의 상생공동체
- 사례7. 강화군 콩세알나눔센터 - 노인 · 젊은이가 함께하는 생산공동체
- 사례8. 서천군 얼굴있는 먹거리 - 지역먹거리와 노인일자리의 연계
- 사례9. 오산시 잔다리 마을공동체 농업회사 - 도농 공동체형 마을기업
- 사례10. 기타 (보은군, 해남군, 홍성군)

제1절 농촌노인일자리 사례분석

1. 완주군 두레농장 - 지역농업 재편전략속에 로컬푸드 생산의 거점 역할

1) 두레농장 소개

- 두레농장은 그동안 농업정책에서 소외를 받아온 중소가족농을 조직화하기 위한 완주군 차원의 로컬푸드 영역 개척과정에서 다품목소량생산체계를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시작되었음.

○ 특히 두레농장 사업은 그동안 농업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득문제에 치중하면서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생산, 공동식생활을 통한 소득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농촌노인복지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음.

○ 두레농장은 공공이 지원하는 농업생산시설에서 농촌노인들이 농사짓는 친환경농사 모델로 완주군이 추진하는 로컬푸드와 연계해 판로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09년 2개마을 2개소로 시작하여 2011년 현재 총 5개마을 5개소 두레농장이 운영중에 있음.

-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업1차년도에 운영비 5천만원, 2차년도 4천만원, 3차년도 3천만원, 4차년도 2천만원, 5차년도 1천만원을 지원하고 5년 이후에는 자립경영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표 22] 두레농장 사업현황 (2011년)

마을	시설	참여인력	재배작물
소양 인덕마을	하우스 : 3984m ² 노지 : 3970m ²	15	참나물, 상추, 부추
구이 구암마을	하우스 : 2672m ² 노지 : 1980m ²	18	딸기, 홍양파
구이 상하보마을	하우스 : 2135m ² 계사 : 650m ² 노지 : 4600m ²	26	유정란, 채소
화산 돈의마을	공동안우사 : 1400m ² 퇴비사 : 490m ²	18	한우
소양 약암마을	버섯재배사 : 3600m ²	20	표고버섯
합계		97	

2) 농촌노인일자리 현황

○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소양면 인덕마을은 농장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소득이 생기고 할 일이 생겨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함.

- 예전에는 거의 할 일이 없어 경로당에 모여 TV보거나 화투로 시간을 보냈고 이로 인해 건강도 좋지 않아 일주일에 두세번은 읍내병원에 다녔으나 지금은 열흘에 한번 정도만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도 좋아짐.

-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월 소득은 30~40만원 정도(일당 3만원, 식사제공)로 자식들에게 손벌리지 않고도 기본생활은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됨.

- 2009년 70대 이상 어르신들 26명으로 시작했으나 고령으로 인해 현재 15명으로 줄어듦.

- 근무형태는 조별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3일에 하루정도씩 일하고 있음. 쉬는날에 본인 농사를 하기도 함.

- 식사도 농장옆에서 공동으로 해결함에 따라 어르신들 영양섭취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 생산량의 40%는 군 로컬푸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강밥상 꾸러미에 계약생산납품하고 60%는 전주시 공판장에 판매하고 있음.

- 특히 군에서 하고 있는 꾸러미사업의 경우 년중 고른 가격에 계약생산하고 있어서 가격불안이 없고 안정적이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두레농장 운영관리를 위해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50대 주민 한분, 회계 등 총무를 담당하는 40대 주민 한분 등 2분이 월 50만원씩 받고 지원업무를 하고 있음.

3) 주요특징 및 시사점

가. 고령농에 의한 로컬푸드 생산과 노인일자리 창출

- 완주군은 지금까지 지역농업의 주를 이룬 것이 시장지향형 상업농이었다면, 로컬푸드 생산-소비 영역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지역농정 전반에 걸쳐 생산과 유통의 간극을 줄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높여나가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음.

- 로컬푸드 영역의 개척에서 핵심은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는 중소가족농을 조직화하는 것이고, 시장규모에 맞추어 다품목소량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이를 위한 거점 생산조직으로 농촌 노인들이 공동으로 농사짓는 두레농장이 자리하게 된 것임.

- 특히 농촌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지속이 중요한데 이를 정책적 목표로 삼아 공공이 지원하는 농업생산시설에서 공동생산, 공동식생활을 통해 소득도 보장하고 건강증진도 이룰수 있는 모델로 농촌노인복지형 두레농장 사업이 시작되었음.

나. 민관협력을 통한 생산·소비 조직화 및 새로운 시스템의 마련

- 현재 상업농 중심의 체계에서 고령농, 소농이 담당하는 다품목 소량생산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을 조직해야 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조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이같은 시스템을 구조화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완주군의 경우 행정이 민간영역과 함께 지역경제순환센터를 만들고 로컬푸드 지원, 마을회사 육성 등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직하고 발전시켜 나갈 시스템을 마련해나가고 있음.
- 농촌노인복지형 두레농장도 이같은 시스템속에서 기획되었고 설립 5년후 자립하기전까지 초기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군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물은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꾸러미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다.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촌노인에 적합한 일자리의 구현

- 두레농장은 현재 5개소가 운영중이며 모두 마을내에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조성되어 있으며, 재배품목도 노인들이 일하기 좋은 품목으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이동수단의 제약이 있고 힘든 노동을 하기 어렵지만 농사기술에 정통한 농촌노인들의 특징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다보니 노인들의 호응도 좋고 건강도 유지하며 마을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지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

2. 영광군 ‘여민동락 할매손’ - 농촌공동체 복원과 부흥을 목표

1) 여민동락 소개

- 여민동락(與民同樂)은 ‘여럿이 함께 만드는 즐거운 세상’을 꿈꾸며, 2008년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에 설립된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공동체임.

- 여민동락공동체는 비영리단체로 여민동락노인복지센터, 여민동락 할매손(농어촌공동체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 강화, 지역일체형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
- 여민동락 노인복지센터는 지역 100여명 노인들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손가정 아이들을 위한 '큰들야학', 농촌학교 살리기 운동, 귀농귀촌센터 운영을 비롯해 주인없는 무료시골찻집('同樂'),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공중전화를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음.
- 또한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지정된 여민동락 할매손을 통해 지역특산물인 모시잎 송편사업과 농장사업, 마을 구멍가게인 동락점빵 운영 등 지역의 경제와 복지, 교육사업을 통한 농촌공동체 복원과 부흥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2) 농촌노인일자리 현황

가. 행복일자리사업단 '여민동락 할매손'

- 2009년 6월부터 묘량면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모시 잎 재배부터 송편의 제조가공판매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사회 복지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 취약계층인 할머니들이 주로 참여하면서 어려운 농촌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음.
- 노인일자리는 상근 3명, 비상근 50여명 정도이며 비상근 인력이 주로 마을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음. 근무는 1일 4시간 주3회가 일반적이며 근무시간에 따라 월 15만원~45만원까지 임금을 받고 있음.

- 2009년 6월에 영업을 시작해 약 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1억5천만원, 올해 11월 현재 2억4천만원의 매출을 기록중임. 판매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음.

나. 좌충우돌 농장 - 동락원(同樂園)

- 또한 사업단에서는 동락원(同樂園)이라고 부르는 농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송편가공공장에 원재료가 되는 모싯잎, 각종 콩(메주콩, 동부콩)을 생산하는데, 직원들과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른들이 함께 일하고 있음.

- 첫째 600평으로 시작해 현재 무상임대 계약을 통한 휴경지 경작으로 10,000평으로 확대되었으며, 총 4개마을 14개 농장(농장별 300~1300여평)으로 이루어져 있음.

3) 주요특징 및 시사점

가. 농촌 공동체 복원과 부흥을 목표

- 여민동락은 농촌노인복지를 위해 지역에 정착하였지만 당초부터 복지가 복지안에 갇혀서는 안된다는 생각하에 사업을 추진함.

- 다시말해 현재와 같은 농촌상황에서 10년뒤면 노인들이 다 사라져 버릴 텐데 노인복지가 무슨 소용있느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도 농촌공동체 복원과 부흥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 이는 단순히 복지사업 하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농촌 노인들

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사업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사람과 지역을 분리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나. 경제, 복지, 교육 측면의 통합적 접근

- 현재 농촌지역사회가 처해 있는 공동체 파괴위기는 복지 한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 위기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동체 위기의 해결 또한 복지, 경제, 교육적 측면 모두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것임.
- 여민동락의 경우 농촌노인복지, 농촌학교살리기, 큰들야학, 마을기업, 농촌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있음.

다.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 외부인력 투입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지역주민과의 신뢰형성임.
 -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내 열악한 자원으로 인해 주민자발적 역량의 발굴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귀농인력 등 외부의 자원이 투입될 경우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함.
 - 지역내 자원을 최대한 조직하고 그 역량을 최대화할 때 사업이 성공할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민과의 신뢰형성없이 불가능하기 때문.
- 여민동락이 정착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중 하

나도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음.

- 주민 사랑방을 운영하고, 노인복지를 몸으로 실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형성해 나감.

- 2008년 개원 이래 단 한번도 쌀과 식재료를 구입한 적 없고 지역주민들이 가져다 주는 쌀과 식재료 만으로 먹거리가 해결될 정도로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음.

- 이같은 성과는 '여민동락 할매손' 창업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져 휴경지 임대, 모싯잎 농사 등에 지역 어르신들의 정보와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3. 언니네텃밭 - 여성농민이 주도하는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

1) 언니네 텃밭 소개

- 언니네텃밭은 2009년 3월 강원 횡성군 여성농민 5농가가 자신의 텃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서울 소비자 21가구에 택배로 보내는 '제철 꾸러미' 사업으로 시작하였음.

- 제철 꾸러미의 내용물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한 농산물과 음식으로 주요 취급 품목은 유정란과 두부를 기본으로 하며 제철 농산물이나 제철 저장식품 중 생산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보내는 방식임.

- 2009년 4월에 첫 꾸러미 사업을 시작해서 제일 오래된 공동체는 만 3년이 되었음. 처음에 생산자 열 명 정도로 출발해서 지금은 150명이며, 소비자는 21가족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1500명 정도 되었음.

- 언니네 텃밭은 전국적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남 나주 공동체, 강원 홍천 시동 공동체, 전남 순천 황전 공동체, 제주 우영 공동체, 경북 안동 금소 공동체, 경북 상주 봉강 공동체, 전북 김제 공동체, 강원 횡성 공동체 단위로 운영되고 있음
- 자립적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먼저 추진해 왔으며, 올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사업 신청을 했음.
- 언니네 텃밭은 여성 농민들이 농업노동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했음. 여성 농민들의 자급적 생산 활동 기반인 텃밭을 운영하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여성농민들의 활동력을 높이하고자 하고 있음.
- 마을 또는 면 단위에서 생산자 회원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방식임. 텃밭은 각자 자신의 소유이지만, 함께 계획을 세우고, 씨앗을 나누며, 공동작업을 통해 농사지으며, 포장하고 택배를 통해 배송하는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함.
- 꾸러미 사업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그 공동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임. 소비자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비 10만원을 선납하고 매주(월 4회) 또는 격주(월 2회, 2개월)로 생산자가 보내는 꾸러미를 택배로 받는 방식임.
- 지역공동체의 출하기준은 텃밭이 5백평 이하이고 제철에 나는 농산물 및 토종씨앗으로 키운 농작물을 생산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차츰 전 과정을 친환경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제철 꾸러미를 싸는 날은 동네 잔치날이 되기도 하여, 소비자 회원이

화요일 꾸러미 싸는 날 함께 참여하기도 함.

2) 농촌노인일자리 현황

- 만 55세 이상 회원들이 40%로 구성되어 있어서 농촌 여성농민들 중에서도 다수의 여성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언니네 텃밭은 여성 노인들이 공동체 성원으로 참여하면서 함께 작업을 하고 소득을 만들며, 다른 사회적 활동도 연계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기 텃밭 혹은 두부, 유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생산기반을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감.
 - 여성 농민회가 없는 지역이지만 취지에 합의한다면, 언니네 텃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을 확대할 예정임.
- 언니네 텃밭은 여성 노인들의 농산물 판로확보를 돕고, 인터넷이나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여성 노인들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언니네 텃밭이 판매를 대행하는 것임. 소비자들한테서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생산자들한테서는 팩스나 전화를 통해 전달하는 이중적인 시스템을 운영하여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음.
- 장터는 여성 노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걸 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로를 마련해 주어, 노인들이 밤이나 장류 된장, 고추장 같은 것을 시중가격 대비 저렴하게 판매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있음. 판매수익의 90% 이상을 생산자에게 돌려주고 있음.

- 장터는 올해 광주, 나주, 상주 3개 지역에서 진행했으며, 서울, 강원도에서도 시작할 예정임. 지역마다 형태가 다르며 지역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함. 어떤 곳은 물건만 보내면 도시에 있는 단체에서 알아서 판매하거나, 생산자가 직접 들고 가서 소비자들과 직접 전통적인 장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장에 갖다 주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꾸러미에 참여하는 여성 노인들의 평균 소득은 월 평균 70만 원대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아직 소비자 회원이 많지 않은 공동체 같은 경우는 월 평균 20~30만원을 가져감. 전체 평균을 내면 45~50만 원 정도임.

3) 주요특징 및 시사점

가. 여성 노인들 스스로의 농사로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확보가 가능한 일자리

- 여성 노인들이 꾸러미 사업, 장터에서 자신의 독립적 소득을 갖기 때문에 생산자로서 가정 또는 마을에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지위나 존재감 확보가 가능함.
- 꾸러미 사업의 장점은 매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임. 농업 소득이 일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봄에 밭내고 가을에 농사 지어서 밭 갱으면 끝나는 생활이 반복 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나. 여성 노인들에게 1년 내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 제철꾸러미 사업은 연중 생산량이 많을 때는 넉넉하게 보내지만, 생산량이 적거나 생산이 없는 겨울철은 각종 전통 가공식품의 먹거리 대체재를 제공하고 있음. 잊혀졌던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1년 내내 지속 가능한 공급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

- 제철꾸러미 사업은 소량 다품목 생산의 텃밭농업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농업의 가치를 복원하며, 여성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

다. 여성 노인들이 먹거리의 안정성과 토종씨앗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적극적 생산자로 변화

- 여성 노인들이 제철꾸러미를 출하하며 생산물을 받을 소비자들과 연락하거나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 여성 농민회의 캠페인에 무심한 반응을 보이던 여성 노인들이 꾸러미를 자식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 되면서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고, 토종씨앗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생산자로 변하고 있음.
- 꾸러미 사업을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에게도 지역 식품을 소개하고 전승하는 계기가 되어 전통적인 농산물 가공방법이 계속 계승되고 있으며, 다양한 식단도 개발하고 있음.
- 언니네텃밭은 여성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활동의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음.
 -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이 그간의 여성 농민회 활동과 다른 내용이 많아서 생산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가며, 여성 농민회의 활동과 운영방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에도 기여하고 있음.

4.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손맛사업단 - 어르신들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

1) 손맛사업단 소개

-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관장 배은하 타대오 신부)임.
- 복지관의 손맛사업단은 당초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의 요구에 따라 시작함.
 - 복지관내 은빛어르신대학 참여 노인들께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 교양문화학습도 좋으나 소득활동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구속에 출발하게 됨.
- 2007년 65세 이상 28명의 어르신들로 시작해 2008년 1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09년 희망근로사업으로 40여분이 빠지셔서 줄었다가 2010년 70명 수준으로 안정화됨.

2) 농촌노인일자리 현황

- 강원도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공정 손작업으로 진행하여 어머니의 손맛이 스며있는 고향의 맛을 전하는 상품이며, 명절에는 만두, 송편도 제작판매함.
- 근무형태는 1일 4시간, 오전오후 교대근무(20명씩), 주3회, 월12일을 일하시며 보수는 월150,000원 + 판매수익금 공동배분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명절 등 성수기에는 40~50만원, 비성수기에는 25~3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연간판매액은 1억원을 상회하고 있음.
- 초기에는 맛이 통일되지 않고, 어르신들이 위생개념도 불철저했으나 어머니가 내자식 먹이는 심정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손맛을

일반 가게에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품질경쟁력 확보.

- 전과정을 손으로 직접 가공하는 어머님들의 정성이 알려지고, 사회복지네트워크 등지역내 네트워크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판매가 급증하게 되었고 지난 추석에는 물량이 부족하기도 하였음.
- 복지관에서는 시설에 필요한 초기자본금 등 최소비용만 지원함.

3) 주요특징 및 시사점

가. 노인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

- 농촌노인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가 아닌 철저히 민간주도로, 그리고 민간영역에서도 사업수행기관보다는 일자리수행 노인들이 중심이 되는 운영체계가 확립될 때 사업의 성과도 높을 뿐 아니라 참여 노인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게 될 것임.
-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손맛사업단의 경우, 은빛 어르신 대학에 참여하시는 노인들 스스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 감자떡 사업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사업과정에 복지관에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며, 시설비용 등 초기 자본금만 최소로 지원하였음.
- 노인들 스스로 내가 이 사업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해서 자발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피고용자라는 입장에서 일하는 경우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예를 들어, 설에 만두를 팔기로 했는데 어른들이 평생 농사지으셨던 농사전문가이시다보니 알아서들 좋은 휴경지 알아보시더니 배추농사도 최고로 지으셨고 고춧가루도 어디서 좋은 걸 사오시고 김치도 맛나게 담그셔서 만두속 만들어 판매하시었다고 함.

나. 어머님 아버님의 정성이 담긴 상품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 내자식 내손주 먹이는 음식 만든다는 생각으로 기계 안쓰고 손으로 정성껏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것이 품질경쟁력이 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게 됨.

다.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용, 공공기관 협조를 통한 판매처 확보

-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복지를 비롯한 각종 네트워크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고 초기 안착화에 큰 도움이 되었음.

5. 홍성군 은퇴농장 - 고령농민과 도시은퇴자의 상생모델

1) 은퇴농장 소개

-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은퇴농장(대표 김영철)은 농업인력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실에서 도시에서 정년퇴직 후 소일거리가 없어 무료한 나날을 보내는 은퇴자 및 귀촌 희망자들이 농촌으로 귀농(하숙개념)하여 영농(파종·수확·포장), 판매 등을 실습하고 적당한 소일거리가 소득으로 연결되면서 보다 건강하고 보람찬 황혼을 맞이할 수 있는 공동체임.

- 현재 은퇴농장에는 21분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시며, 이중 농민 은퇴자는 1분이며, 평균 연령은 71세(60대~86세)임.

- 거주자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내고 식사를 제공받는 하숙개념으로 입주하여 생활하는 농장임.

2) 농촌노인일자리 현황

- 은퇴농장의 지난해 농산물 판매액은 야채(8000여만원), 가공식품(1억원) 등 2억원 정도임.
 - 생협 등 소비자단체와 계약생산으로 각종 유기농산물(주로 야채)과 가공식품(김치류, 절임류, 나물류, 장류 등)을 판매하고 있음.
- 농장은 비닐하우스 1000평, 노지밭 4000평 정도이며, 소포장가공시설과 냉장창고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어르신들은 본인 능력에 맞게 주로 수확, 포장 작업을 하고 계시며 작업량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고 있음.
 - 인건비는 월평균 1인당 12만원~80여만원 정도이며, 농산물 판매액에서 10~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함.
 - 농산물 생산은 이웃한 풀무생산자조합에서 주로 담당하고 도시은퇴자들은 수확 및 소포장을 담당하고 있음.
- 도시 소비자회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과 채류 행사도 진행함.
 - 도시민들이 은퇴농장을 방문하여 각종 영농체험과 농산물 가공체험을 할 수 있으며, 휴가철에는 농장에 채류하면서 인근 계곡과 산, 해수욕장에서 휴가를 즐길수도 있음.

3) 주요특징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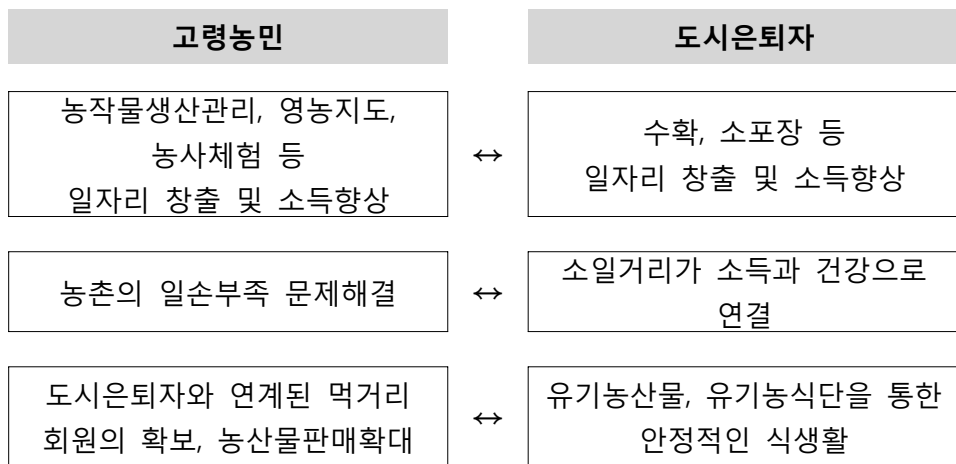
가. 고령농민과 도시은퇴자가 상생하는 모델

○ 흥성 은퇴농장의 사례는 지역의 고령생산농가들 또는 마을공동체가 농장과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도시은퇴자들이 이곳에 입주하여 생활하며 노인일자리를 통해 일정한 소득도 창출하고 노령자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고령농민의 입장에서서는 도시은퇴자 하숙비로 농외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도시은퇴자와 연계된 먹거리 회원확보로 농산물 판매활성화, 농사체험활동 등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수확·포장 등에서 부족한 일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도시고령자의 입장에서서는 전원생활도 하면서 소일거리가 소득으로도 연계되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5] 고령농민과 도시은퇴자 상생모델



나. 마을 단위의 소규모 생산, 가공 판매사업과 도농교류 활성화의 시사점 제공

○ 처음부터 대규모 시설을 투자하는 등 규모화를 시도하지 않고도 마을 단위에서 노인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소규모로 생산하고 가공해서 일정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은퇴농장의 경우처럼 단순 농산물 판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활동 제공, 여름휴가와 연계, 은퇴후 정착지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도시민과의 끈끈한 교류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다. 귀농희망자 농촌정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중 하나

- 도시은퇴자 뿐만 아니라 귀농희망자들도 적은 비용으로 농촌생활 및 영농체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귀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6. 옥천군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 - 농촌노인과 귀농인이 상생하는 공동체

1)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 소개

- 사업수행자가 1998년부터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사람이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을 만들고자 스스로 활로를 찾고, 지속적으로 방향을 모색해왔음.
- 친환경농업 마을 농가 수는 전체 101호, 친환경 농업실천면적은 50.3ha에 이르며, 친환경농업법인 회원수는 51명, 70~80대 회원들이 95%를 차지하고 있음.
- 영농구성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재배작목은 벼, 콩, 보리, 배추, 등 1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1998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하여, 2002년에는 친환경농업마을 조

성, 2005년에는 운영주체로서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및 홍보, 친환경농
자재의 공동구매와 공급, 친환경인증, 친환경농산물의 공동관리, 유통,
판매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을 설립했음.

○ 2002년 친환경 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자 친환경 농업이 준비된 농
가였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친환경 리더 역할을 요청받음. 5농가의 참
여를 이끌어내고, 28농가까지 확대시키며 3년차에 사업 완료됨. 상으
로 받은 2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농가들의
합의를 얻어 법인 설립으로 의견을 모음.

○ 2011년 농어촌공동체 회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을 지원받아 산계뜰
홈페이지 구축(1천200만원), 지역조사(300만원), 산계뜰 스토리텔링(2천
만원), 카탈로그 및 소품제작(500만원),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500만
원), 도시로 찾아가는 농촌체험(500만원) 등의 사업에서 활용함.

○ 시설·장비현황은 부지 2,800평, 곡물저장 사일 로 50톤 1기, 지게차
2.5톤 1대, 자재창고 40평, 순환 식 곡물 건조기 62식 3기, 저온창고
40평, 친환경전문 도정시설 1식(50평), 광역방제기, 미생물(액비)살포기,
트랙터 135마력 1대, 조사료 생산장비 1식, 자동화 육묘장 600평, 친환
경 교육 및 체험관 등을 구축하고 있음.

○ 생산, 가공, 판매, 체험사업 등에서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목표로 함.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농법)의 도입,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푸른들가
꾸기 사업(경관보전 조성사업 등 생산 전반에 관한사업, 경축순환의
실천농업을 통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비자, 생산자, 어린이, 학생, 귀농인)으로 네트워크 조성 및 귀농인
정착사업임.

○ 도농교류 사업으로 '이야기가 있는 산계뜰 보따리'는 농산물의 생산
과정, 고향, 그리움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엮어서 홈

페이지에 올려 소비자로 하여금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사업이며, '찾아가는 고향'은 농업인들이 직접 재료를 준비해 도심지의 학교, 기관 등을 찾아가 학생, 주부 등과 농산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산계틀에서 수확한 친환경 벼는 직접 도정한 뒤 옥천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서울 덕성여대, 덕성여대 부속유치원, 대전 종합청사유치원, 청성초등학교 등의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10여년의 교류에 의한 홍보효과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판로를 확대해 왔음.
- 향후 계획은 친환경에 기반을 둔 병원을 유치하고 유기농 먹거리 공급으로 치료와 건강을 유지하는 '의농'개념의 요양병원을 만들어 외부 환자들을 지역으로 유치해서 소득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농촌노인일자리 현황

- 초기에 대다수였던 60~70대 회원들이 지금 70~80대가 되었음. 나이 들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농촌에서 노후까지 경제와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게 되었음
- 농촌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므로 공동체를 이어나가기 위한 귀농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노인들이 이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여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난 10년간 귀농인 10여명이 거쳐갔음. 현재 쇼핑몰 운영 2명 고용, 마을귀농 2가족, 무보수로 일 배우는 1가족이 있음.
 - 생산, 가공, 농촌체험행사에서 노인들의 역할과 일자리를 만들고 있

음. 노인들은 생산기반 유지 혹은 농사관리 역할을 맡거나 농사체험 등에서 노인들이 새끼 꼬는 모습 등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함.

3) 주요특징 및 시사점

가. 젊은 인력 유입과 더불어 기존의 노인들이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차원의 일자리 구축

- 1998년부터 20여년에 걸쳐 마을리더가 꾸준히 친환경 농업에 대한 중심을 지켜오며 점차 농가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직화 해왔으며, 처음 함께한 노인들의 노후까지 책임지려하고 있음.
- 젊은층이 나서서 일을 하며, 노인들에게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부여하고 있음.
 - 노인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더라도 귀농인을 위한 농사관리와 농사교육 역할을 하거나 농사체험에서 보여주기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지원

- 사업자가 10여 년간의 지역활동을 통해 생산, 가공, 체험 등의 사업과 학교급식에서 판로를 확보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해졌음. 공동체 단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공동체 단위의 이익창출로 노인들에게 일자리와 노후를 보장하는 체계를 지향함.

7. 강화군 콩세알나눔센터 - 노인들과 젊은이가 함께 일하는 일벗 생산 공동체

1) 콩세알나눔센터 소개

- 농촌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기 위해 귀촌하였으나 농업 농촌의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는 방안과 노인들이 농촌에서 사는데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었음.
-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하겠다는 고민으로 '일벗 생산공동체'를 먼저 만들게 되었음. 일을 벗 삼는다는 의미와 함께 일하는 친구를 벗 삼는다는 의미인 일벗 생산공동체는 자연과 상호의존적으로 살고 싶은 이들이 함께 생산활동을 해, 자립기반을 잡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처음에 네다섯 사람이 생산 공동체로 모여서 농사짓고, 함께 가공하고 판매까지 고민하면서 인근에 있는 어머니들이나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인건비를 받게 되면서, 일할 수 있는 생산 공동체의 인원을 확충하게 되었고, 3년간의 지원이 올해 2011년 종료되었음.
- 지역 내에서 가급적 취약한 어르신들, 또 지역에 귀농을 했는데 좀 기반이 약한 사람들을 결합 시키면서 생산 공동체가 20명 정도로 커졌음. 농업 자원이나 향토 자원을 사업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지원 종료 후 15명 정도 규모로 안착되었음.
- 초기자본으로 사업자가 1억을 출자했으며, 향후 주민주주 혹은 주민 참여방식을 고민하고 있음. 공동체지원농업(CSA) 꾸러미 사업으로 회원은 150명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농교류 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폭을 넓히면서 자립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 마을의 '통로'가 되고 '에너지 원동력'이 되는 기업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누구든지 살고 싶은 마을, 노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농업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농촌노인일자리 현황

- 지역내 고령 농민을 위한 영농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주요 활동 목표로 하고 있음.
- 규모는 무농약 이상 만 평의 생산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지원을 받을 때는 노인 5~6명이 일했고,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 두세명이 일하고 있음.
- 지원 종료 후 생산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상시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함께 일했던 노인들을 중심으로 파트타임 혹은 비정규 형태의 전일제 고용 등으로 한 달에 몇 십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센터에서 두부 만드는 생산직 노인들은 정규형 일자리로 100~110만원 선에서 월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음.
- 노동력 일부를 수익과 상관없이 생산 공동체에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 또한 목표로 하고 있음.

3) 주요특징 및 시사점

가. 작목반, 꾸러미, 장터 활성화로 소농들의 판매망 구축 및 수익 창출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 마련

- 농촌에서도 취약 계층인 고령소농, 새로운 귀농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생산 공동체와 두부가공, 농민식당 서빙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음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산 공동체를 꾸렸으며, 꾸러미 사업의 일부를 지역 나눔사업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마을기업의 활성화가 지역 전반의 소외계층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나. 생산 공동체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착

- ‘일벗 생산 공동체’를 중심으로 노인들에 대한 영농지원 사업을 최우선에 두었음.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종료 이후에 자립적 기반이 안착되어가고 있으나 임금지원 부족분을 단기간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 수는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되었음.

8. 서천군 ‘얼굴있는 먹거리’ - 지역먹거리와 노인일자리 연계

1) ‘얼굴있는 먹거리’ 소개

-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지역먹거리 생산자조합(영농조합법인)은 지역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도시와 농촌 사이를 지역먹거리 운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30여농가의 참여속에 설립 되었음.
- 생산자조합은 이미 국내에 로컬푸드 운동 사례로 잘 알려져있는 ‘얼굴있는 먹거리’라는 브랜드로 직매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서천지역내에서 꾸러미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2009년부터 운영중인 직매장에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각종 곡식류, 가공농식품, 서천김, 생선 등 생산자조합 회원인 농민들과 기타 서천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일종의 생협매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 지역먹거리 생산자조합에서는 유정란, 생선, 김, 된장, 장류 등 40여 가지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음.

○ 꾸러미 사업은 지역내 소비자와 일주일에 1회 정도씩 농산물을 담은 상자를 공급하고 소비자는 매달 회비를 내는 방식임.

- 유정란 정기구매자 100명(주 1회 배송), 두부 정기구매자 200명 정도였고, 된장, 쌀, 야채도 함께 배달하였으나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는 판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생산자조직이 어렵고 소비자 조직화도 더딘 상황이며, 학교급식과 지역급식에 지역의 수산물과 농산물을 납품하는 일종의 도매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2) 농촌노인일자리 현황

○ 생산자조합의 회원들은 대개 60대 이상의 고령자이자 중소농들로서 직매장과 꾸러미 사업의 주요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매장과 유정란농장에 각 1분씩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심.

○ 향후 자연양계생산자조합 설립으로 농촌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임.

- 거점농장에서 60일간 자연양계방식으로 키워 노인들께 분양하는 사업을 구상중임.

- 양계의 특성상 새벽에 모이를 줘야 하고 하루 두 번 계란을 수집하고 깨끗이 손질하면 되는 작업이므로 노인들에게 적합함.
- 또한 어르신 혼자 하시면 100수 사육(월 40만원 수입)이 가능하며, 어르신 2~3분이 300~500수 키우시면 월 100만원 수입도 가능함.
- 거점농장에서 사육방법 교육, 사료 공급, 판매사업을 담당하고 사육은 개별농가에서 담당하는 시스템임.
- 도시 소비자 판매를 위해서 도시내 노인가파트택배 등과 연계하면 도시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창출되는 이중효과를 거둘수도 있음.

3) 주요특징 및 시사점

가. 지역먹거리와 농촌노인일자리 연계

-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지역먹거리 사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구조이므로 고령농가의 소득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서천군의 경우에도 규모화된 농가의 경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거래하며 판로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중소고령농의 경우 농협이 제역할을 하지 못해 판로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지역먹거리 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농촌노인일자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나. 지역먹거리의 판매, 유통, 물류를 기획총괄하는 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이 중요

- 현재 서천 '얼굴있는 먹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물류를 운영할 만한 규모의 판매처 확보, 소비자 조직화가 미진하기 때문임.
- 지역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먹거리 사업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판매를 전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기획,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또한 중간조직에 귀농자를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착을 위한 과정으로도 활용가능할 것임.
- 특히 농촌지역의 자원이 부족한데 이를 통합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조직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9. 오산시 잔다리 마을공동체농업회사 - 도농 공동체형 마을기업활성화와 연계한 노인 일자리

1) 잔다리 마을공동체농업회사 소개

- 2011년 2월부터 사업자가 전(全)두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연구조사해왔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에서 오랫동안 조사하고 연구하며 두부에 주목하게 되었음.
- 전두부는 콩을 통째 갈아 넣어 콩의 영양성분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는 두부로 일반두부에 비해 영양가가 높고 폐수처리, 비지 버리는 것이 없어 가공과정이 환경 친화적이라는데 주목하게 되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했음.

- 개인사업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이 옳고, 사회적 변화라고 느껴져서 마을기업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음.
-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업자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주민들과 상의하면서 사업추진을 설득했음. 주민 공청회를 두 차례 열어서 뜻있는 주민 주주들을 모집하고, 12명이 총 1억 공동 출자금을 마련하여 2011년 9월 설립했음.
- 도농복합형 지역인 오산의 특성에 맞게 지역 콩의 생산과 마을기업에 의한 가공, 판매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을 목표로 하고, 지역 생산자들의 콩을 수매하여 전두부를 가공, 판매하고 있음.
- 행안부 지정 경기도 마을기업 육성정책으로 1차년도 5000만원을 지원 받았음.
-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기업’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전두부 판매량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아짐.
-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수의 주문은 수입콩을 사용해서라도 단가를 맞춰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옴. 그러나 우리콩 사용에 대한 약속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판로 확대가 쉽지 않음.

2) 농촌노인일자리 현황

- 직원은 모두 마을주민으로서 두부를 만드는 생산직 60대 2명과 영업직 등 8명이 근무하고 있음.
 - 올해 지역 콩을 모두 소매가 수준으로 수매하였는데, 향후 계약재배를 통해 전량수매를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역 농민들의 콩재

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농촌노인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잔다리 전두부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열어 마을 할머니들이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며 일하는 잔다리마을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주요특징 및 시사점

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농촌에서 콩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서 농사기반을 확대시키며, 수익확대에 따라 마을기업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임.
- 또한 향후 도농복합지역 오산의 특성을 살려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와 오산시민이 함께 교류하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지역풀뿌리형 마을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나. 체험, 견학 등 꾸준한 교육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노인들과 함께 마을기업의 의의와 목표를 공유

-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일을 하며, 노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모색하여 노인들과 상의하고 있음.
- 마을기업 설명회에 노인들과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방식을 통해 인식을 조금씩 바꿔 나갔음. 노인들도 다른 마을기업들의 현황을 보며 사회적 흐름을 공유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목표를 함께하고 있음.

10. 기타

1) 보은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가. 농촌노인일자리 현황

- 공익형 일자리로 노노케어 일자리 사업을 2007년부터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올해는 중단함.
- 공익형 일자리인 노노케어의 경우 올해 80여분의 어르신들이 80가구를 돌보고 있는데, 년초 대상자 선발시 타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매우 많음. 이에 따라 재산관계까지 조사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대기자 명단도 공개하는 등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선발인원을 더 확대해야 함.
- 시장형 사업으로 지난해 대추차 가공업체에 대추씨를 빼고 납품하는 일을 해보았으나 수익이 너무 적어 실패하였고, 고추 다듬는 작업도 해보았으나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고, 휴경지 콩재배도 하려했으나 노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관계로(편안한 일 하고 싶어함) 시장형 일자리는 1년간만 진행한후 반납하였음.
- 과수원 등 영농현장에 인력파견형도 해보았으나 이미 농촌현장에 일손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었음.

나. 주요특징 및 시사점

○ 사업을 기획하고 경영할 주체의 부재로 인한 시장형 사업의 실패

- 지역내 농촌노인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기획하고 사업체를 경영 할 수 있는 주체 없이 복지관에서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라고 판단됨.

- 대다수 농촌지역 역시 여건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간자율적인 시장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기획하고 경영을 지원할 주체와 중간지원조직의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 됨.

○ 또한 시장형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주의로 접근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줌.

- 다시말해 농촌노인들내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업실적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시장형 사업을 추진한 경우여서 실패했다는 것임.

- 보은의 농산물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 하며 방안을 찾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의 경험이 없는 복지관에서 임의로 사업을 정해놓고 사회복지사가 모집하고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하였기에 어르신들의 주인의식은 더욱 없어지게 되고 실패 확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2) 해남 좋은농부 마을기업

가. 농촌노인일자리 현황

○ 해남 좋은농부 마을기업은 2011년 8월 고용노동부 ‘청년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음.

- 주요 핵심사업은 지역농산물 유통, 유통마진 및 주주출자 등을 통한 마을 가공공장 설립, 친환경 농산물 직영생산,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양적확대에 기여, 수익의 일부로 주민 문화복지사업(의료봉사팀 대학생 농활대 유치, 음악회, 청소년 도시견학, 청소년 창의예술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임. 현재 지역 공부방에 친환경 쌀을 후원하기 시작했음.

- 생산은 친환경 쌀이 주요 품목이며, 유통은 마을 및 해남권 생산물인 쌀, 고구마, 고추, 잡곡류, 김, 절임배추 등을 수매 최고가 보상으로 수매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구매자 500여명이 확보되었으며, 최초 구매자가 재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방향임. 8월부터 올 연말까지 매출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음.

- 현재는 주로 마을 여성노인들이 동네 정자나 경로당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고추다듬기, 세척, 마늘까기 등 소소한 일거리가 제공되고 있음.

○ 마을 주민, 도시 소비자들을 주주로 참여시켜 양적 규모화 질적 규모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임.

나. 주요특징 및 시사점

○ 해남 좋은농부 마을기업은 “얼굴있는 농사” “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음.

- 친환경쌀 농사 과정을 이야기를 담아 블로그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못자리에서 싹이 나는 감동도 전하고 트랙터 사고 소식, 5월 한달 내내 계속되는 모내기 과정의 고된 땀방울을 도시 소비자와 공감하며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음.

- 깐마늘 판매할때는 옆집 할머니가 마늘 까시는 과정을 공개하고 '이 마늘은 할머니가 깐마늘입니다'라고 소개함.

- 보이는 소비, 보이는 생산을 지향하며 어떻게 생산하는지 마을의 얘기를 도시에 알려줌으로서 신뢰를 형성함.

○ 소비자와의 신뢰형성을 관계맺기로 확대해 나감.

- 텃밭을 조성해서 소비자 회원을 모집하고 해남에 와서 농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남 관광 등과 연계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도시 소비자가 농촌 마을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관계로 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마을기업의 특성상 생산가공 활동이 모두 마을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마을단위의 소소한 일(어르신 농산물 판매, 고추 다듬기, 고구마 캐기, 배추절임, 마늘까기)등이 모두 일자리 형태로 고안될 수 있음.

- 또한 이동수단의 제약 때문에 주로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마을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소일거리로 할 수 있어 농촌노인일자리 좋은 사례임을 보여주고 있음.

3)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상촌농장

가. 농촌노인일자리 현황

-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는 총 4개 마을의 영농작목반이 운영중인데, 그중 상촌농장(영농작목반)은 2009년부터 시작함.
- 처음에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각출한 쌀과 부식으로 공동식사를 하다가 임대농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정부 시장형 일자리로 선정되어 약간의 소득도 지원받고 있음.(2010년 1920만원, 2011년 1620만원 지원)
- 인원은 13명이며 평균 연령 74~75세(최하 67세, 최고 80세임)이며, 농사는 논 3000평, 밭 1000평에 주로 쌀, 고구마, 깨 농사를 짓고 있음.
- 지난해 농산물 판매액은 1000여만원이었고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월 1인당 10만원정도(경로당 공동식비 제외)의 소득이 되었음.
- 쌀은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내다팔고 고구마는 노인회원중 서울 사는 자제분 마트에 팔고 있음. 규모를 좀더 늘릴 수 있지만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

나. 주요특징 및 시사점

- 남자노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거리가 공동농사임.
-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어르신들도 대부분 평생해오던 일이라 농사일에 대해 잘알고 있고 혼자하면 힘들지만 공동으로 농사를 지으면 운동이 되어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 좋다는 답변을 하시었음.

- 현재 10만원 정도밖에 소득이 없지만 돈을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경로당 공동식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공동농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음.

○ 농한기에도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나 가공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농번기에는 그나마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도 꽤 있지만 농한기에는 일거리가 아예없음. 따라서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하거나 영농사업으로 콩, 찹쌀농사를 하고 가공산업으로 매주, 청국장, 강정을 만드는 등 영농사업과 가공산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공동작업장과 솥, 용기 등 일부 시설을 지원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강정 등 가공식품 생산이 가능함.

○ 판로와 가격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

- 상촌농장의 경우 현 인원으로 농사 규모를 더 늘릴수도 있으나 판로문제와 가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규모를 쉽게 늘리지 못하고 있음.

○ 남성노인들은 자전거, 오토바이로 면단위 내에서 어느정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여성노인들은 이동수단의 제약이 남성노인보다 크므로 마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함.

제2절 소결

총 12가지 농촌노인일자리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사회의 여건에서 농촌공동체를 재구축하고 지역농업농촌 회생에 기여하며 농촌노인일 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다양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음.

또한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노인일 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농업재편전략, 마을 기업·사회적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커뮤니티비즈니스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회적일 자리 창출흐름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음.

뿐만 아니라 일 자리의 주체, 일 자리의 내용 및 일 자리의 목적에 따라 농촌 노인일 자리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10여가지의 농촌노인일 자리 활성화 유형을 도출해 낼 수 있었음.

제6장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제1절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방향

농촌노인은 더 이상 복지의 시혜대상이 아니라
농업농촌회생의 일주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

1. 농촌공동체의 재구축

- 심각한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있는 농촌사회는 이미 아기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마저 돌아가시면 마을공동체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우려됨.
- 특히 농촌지역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일자리 자체가 없어 기본적인 소득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할 일이 없어 건강마저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따라서 농촌노인일job 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농촌지역 다수인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건강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도 대비함으로서 농촌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이를 지향해야 할 것임.
- 오래가지 않아 마을도 학교도 사라지고 사람도 몇 안 남을 것이라는 농촌 공동체 자체의 존립 위기하에서, 농촌노인일job 자리는 마을과 지역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고, 살아있는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복원과 부흥에 기여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저희가 복지로 시작했지만 복지가 복지안에 갇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었죠. 농촌에서 복지는 곧 지역사업이 되야된다. 좀 더 얘기하면 10년뒤에 노인들 다 사라져버리면 노인복지 무슨 소용 있냐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경제와 교육 아니겠나 생각했죠.” (노인복지시설 여민동락 권혁범 센터장)

- 또한 농촌노인일자리는 농촌노인들에게 단순한 삶의 연장을 위한 돈벌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노인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영농기술자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이들의 경험을 후세대에 전승하고 노인들이 평생을 살아온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남은 생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농촌노인일자리는 단순히 풀뽑고 쓰레기 줍는 공동일자리가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조직으로 확대 되어야 합니다. 댁가로만 일하는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데서 의미를 찾는 거죠” (광산구노인복지관 강위원 관장)

2. 지역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전략과 연계

- 공동체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에서 농촌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시장경제가 담당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제영역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것은 지역농업과 농촌지역을 새롭게 변화발전시키려는 혁신전략과 연계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중소농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여 기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영역을 창출하는 지역농업 혁신전략과 연계함으로써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지역농업의 시장지향형 상업농 체계하에서 고령농은 설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재 농업농촌의 현실임.

- 고령농의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소량일 수밖에 없으므로 규모화된 전업농과 경쟁하기 어렵고 일반 시중유통을 통해 판매하는데 어려운 점이 발생하기 때문임.

- 그런데 농촌노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영농작업이므로 고령농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것이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건강유지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이같은 지역농업의 새로운 영역은 로컬푸드가 대표적인데, 이는 민간은 물론이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역농업 재편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음.

“완주군을 보면, 1만농가중에서 3천농가는 규모화된 상업농이고, 3천가구가 별소득이 없는 소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80개 자연부락중에서 최소 100개 정도의 마을을 살리려면 그동안 정책적 소외를 받아온 소농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들 소농이 최소한 월 100만원 정도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마을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정책적 목표하에 생산과 소비를 조직하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형 두레농장을 만든 것이고, 중소농을 위해 지역농업을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나영삼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장)

○ 둘째, 최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의 사회적 일자리는 결국 노인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셋째, 전통문화, 역사와 교육, 음식문화 등 농촌노인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식을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을 것임.

3. 경제 · 복지 · 교육 · 문화 측면의 통합적 접근

○ 현재 농촌의 위기는 소득감소, 빈곤 확대, 학교 폐교 등 경제, 복지, 문화 측면의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촌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개별사업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회생전략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임.

- 즉, 노인복지 따로 일자리 따로 마을개발사업 따로 사회적기업 따로 로컬푸드 따로가 아니라 농업농촌 회생이라는 하나의 목표하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임.

“현재 농촌에는 각종 마을개발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우후죽순처럼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는 지역시민사회내 젊은 사람들이 좋은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있는데, 이들이 농촌마을 주민들과 함께 체험마을을 만들어 마을도 살리고 노인분들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평생 농사지으며 살아오신 농촌노인들이 협동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귀농한 젊은이들의 도움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상품화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대영 차장)

“농촌복지·경제·문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노인복지, 농촌학교살리기, 마을기업, 마을축제복원, 로컬푸드 등이 모두 함께 어우러질때 노인일자리도 마련 될 수 있습니다”, “지역자체의 생협, 마을형 사회적 기업 등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노인일자리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광산구 노인복지관 강위원 관장)

4. 농촌 노인의 자발성과 지역사회 공생성 강화

○ 첫째, 노인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이 사업성공의 핵심이기 때문

- 농촌노인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개발업자들이 주도하고 시행하는 하향식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민간주도로, 그리고 민간영역에서도 사업수행기관보다는 일자리 수행 노인들이 중심이 되는 운영체계가 확립될 때 사업의 성과도 높을 뿐 아니라 참여 노인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게 될 것임.
-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먼저 정해놓고 어르신들 모집하고 등록 받아서 사업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첫 시작부터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고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도 좋은 방식이 될 것임.

“은빛 어르신 대학에 참여하시는 노인들 스스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 감자떡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복지관에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어요. 초기 자본금만 최소로 지원했죠. 처음에는 맛도 통일안되고 위생모자도 안쓰시려해 애도 먹었지만 운영을 전적으로 어르신들이 하시게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구요. 설에 만두를 팔기로 했는데, 어른들이 평생 농사지으셨던 농사전문가시잖아요. 알아서들 좋은 휴경지 알아보시더니 배추농사도 최고로 지으셨고 고춧가루도 어디서 좋은 걸 사오시고 김치도 맛나게 담그셔서 만두속 만들어 판매하시더라구요. 어머님 손맛정성이 알려지니까 판매도 좋아져서 지난 추석때는 떡이 모자라 판매를 못할 정도였어요”

“내가 이 사업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해야 자발성과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피고용자라는 입장에서는 수당만 계산한다니까요”(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박재웅)

○ 둘째, 지역내에서 함께 해결하고 만들어가는 공생성을 강화해야함.

- 농촌지역사회는 자원이 열악하므로 개별보다 협동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노인일자리 역시 지역의 주요 현안이며 지역 미래세대의 문제이므로 지역과의 공생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농촌노인일자리는 농촌공동체 복원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단순일자리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선의의 협동을 통해 경제 너머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불어 어깨걸고 손맛잡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일구어 가는데 기여해야 할 것임.

5.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

- 현재 사회적일자리의 부실문제가 심각히 거론되고 있는데 농촌노인 일자리 역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다면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이 심각히 훼손 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삭감시 경영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울수 있음.
- 따라서 농촌노인일자리는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첫째,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조직화와 판매유통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기존 시장지향형 상업농 체계에서 중소농을 위한 로컬푸드 영역 개척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많았죠. 다품목 소량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생산자조직화가 필요했구요, 또, 판매처를 확보해야 하니 소비자 조직화가 중요했고, 원활한 물류를 위해 유통을 조직해야 했습니다. 이런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간조직으로 지역경제순환센터가 만들어진거죠” (나영삼 완주군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이 더디고 물류유통의 경제성을 못맞추다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간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재국 서천군 얼굴있는 먹거리 사무국장)

- 둘째, 농사를 잘아는 농촌노인과 기획관리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귀농인력의 협동은 좋은 방안이 될 것임.

“마을 사무장 고용으로 뜻있는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이들이 12년 일하면서 신뢰를 쌓은후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여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결합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남좋은농부 마을기업 강윤구 대표)

“농사를 잘 아는 마을 어르신들이 협동농사로 친환경 영농을 맡고 기획, 관리, 마케팅, 생산가공, 정보화 등의 업무는 도시에서 그 일을 주로 하며 살아 온 귀농인이 맡아 하면 조화로운 것 같아요”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기업’저자 정기석)

- 셋째, 어머니님 아버님의 정성이 담긴 상품, 얼굴있는 농산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관계맺기로 확장해야함.

“내자식 내손주 먹이는 음식 만든다는 생각으로 기계 안쓰고 손으로 정성껏 만들게 되니까 일반 감자떡 만드는 업체와 달리 어머니 손맛이 느껴졌나봐요. 어머니 손맛정성이 알려지니까 판매도 좋아져서 지난 추석때는 떡이 모자라 판매를 못할 정도였어요”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박재홍 사무국장)

“농사짓는 과정을 모두 블로그를 통해 공개합니다. 얼마전 트랙터 사고 난것도 올렸어요. 깐 마늘을 팔았는데 옆집 할머니가 작업 하셨거든요. 이 마늘은 옆집 할머니가 깐 마늘입니다라고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어요. 보이는 소비, 보이는 생산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 우리 마을의 얘기를 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민질 못하는 사회인데, 조금씩 신뢰가 쌓이더라구요. 꾸준히 구매하는 분들이 500분 정도 되거든요. 이제는 도시민들께 텃밭도 분양해서 운영중이고 농사체험도 확대해볼려구요”
(해남좋은농부 마을기업 강윤구 대표)

6. 농촌지역특성과 농촌노인의 특징을 고려

- 농촌노인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이 갖는 특수성과 농촌지역 노인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일자리 창출방안을 세워야 할 것임.

- 첫째, 농사전문가로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삶의 경험을 전승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함.

“어르신들이 평생 해왔던 게 농사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시키는게 애매하고,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킬수도 없는 거잖아요, 특히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인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농사전문가니까 농사쪽으로 고민해보자 한거죠”(노인복지시설 여민동락 권혁범 센터장)

“농사를 잘 아는 마을 어르신들이 협동농사로 친환경 영농을 맡고 기획, 관리, 마케팅, 생산가공, 정보화 등의 업무는 도시에서 그 일을 주로 하며 살아 온 귀농인이 맡아 하면 조화로울 것 같아요”
(‘마을을 먹여살리는 마을기업’저자 정기석)

- 둘째, 이동수단의 제약이 있는 농촌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요구됨.

“마을서 나가기가 어려워. 지금 공익형 일자리 하는 남자들도 오토바이 타거나 자전거타고 면으로 나가는데 사고위험이 있어 문제야. 여자들은 아예 나갈 수가 없지. 그니까 마을서 할 수 있는게 제일 좋지. 여기 회관에서 메주도 만들고 강정도 만들면 좋지. 찜들 만드시지”(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노인일자리 전담 인화수)

- 셋째, 농번기와 달리 일거리가 거의 없는 농한기에도 할 수 있는 일 자리를 마련해야 함.

“그래두 영농철에는 농사일이라도 있으니 소일거리하면서 잘 지내는데, 수확 끝나면 이제 할 일이 없지. 텔레비 보거나 화투치거나 해야지 뭐”(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상촌리 분회장)

- 넷째, 동네 어른들과 함께 마을회관이나 정자 등에서 담소도 나누고 소일하며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함.

“청국장 옛날방식으로 만드는 거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소일하면서 재미있게 하실 수 있거든요... 마을마다 가게가 없어졌는데 마을점빵을 만들려구요. 어르신 세분 고용해서 돌아가며 가게 보실 수 있게. 수익은 생각않고 망하지만 않게 하면 되죠... 종자채종, 마을이동장터, 마을심부름센터, 협동농사, 빈집정보센터, 독거노인밀반찬 배달, 다문화가정 지원, 소소한 농사일 등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일, 그리고 꼭 필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광산구 노인복지관 강위원 관장)

- 다섯째, 여성독거노인의 비중이 확대되고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이동수단의 제약이 심하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여성노인들의 노동력과 전통지식을 활용한 일자리가 필요함.

“노인회 아래층에는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남자들이야 영농 사업을 하는데 여자들은 할 일이 없어. 일자리 있어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여자들이 할 수가 없잖어. 그니까 맨날 할 일없이 놀잖어. 그래도 메주나 강정 같은거 하면 여자들이 잘하지. 우리 남자들이 콩재배하고 가을에 수확하면 여자들이 메주쏘구 찹쌀 재배하면 여자들이 강정만들구 그러면 좋지.”(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상촌리 분회장)

- 여섯째, 지역자원조사에 기반하여 지역의 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일자리를 마련해야 함.

“영광은 특산품이 굴비하고 소금인데, 다 바닷가에 있는 거고. 어떤 어르신이 모식얹떡 사업을 군에서 막 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르신 말씀이 모식얹이 재배가 쉽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어르신들 모집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모식얹떡 사업을 시작한거죠.” (노인복지시설 여민동락 권혁범 센터장)

“은빛 어르신 대학에 참여하시는 노인들 스스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 어떤 분이 감자떡이 횡성 특산물이니까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일반업체에서는 기계로 만드는데 우리는 손으로 직접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거죠.”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박재홍 사무국장)

제2절 농촌노인일자리 유형별 분류

이 절에서는 농촌노인일자리 사례분석에 기초하여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유형을 분류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하고자 함.

우선 농촌노인일자리 유형은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일자리주체, 일자리내용, 일자리목적 등의 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분류하였음.

또한 농촌노인일자리 12가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일자리 유형을 10가지로 예시하였음.

1. 농촌노인일자리 유형별 분류기준

1) 농촌노인일자리 주체에 따른 분류

- 농촌노인일자리란 일자의 중심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농촌노인일자리 사례분석 결과, 농촌지역 노인일자리란 농촌노인, 여성농민, 귀농귀촌인, 도시은퇴자, 마을주민 등이 주체로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갈수 있음.
- 또한 개별 주체가 중심이 되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체간 협동을 통해 마련하는 일자리도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옥천군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 홍성군의 은퇴농장 등과 같이 농촌노인과 귀농귀촌인 또는 농촌노인과 도시은퇴자가 함께 만드는 일자리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임.

2) 농촌노인일자리 내용에 따른 분류

- 농촌노인일자리란 일자의 내용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음.

- 농촌노인일자리 사례분석 결과, 농촌노인일자리 주요내용으로는 꾸러미사업 등 로컬푸드, 농산물생산, 식품가공, 마케팅, 서비스, 귀농귀촌지원, 도농교류, 전통지식·기술 전수, 교육,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일자리 등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향후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더욱 창출될 필요가 있음.

3) 농촌노인일자리 목적에 따른 분류

- 농촌노인일자리 기본적으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동체 해체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일자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농촌노인일자리를 분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득창출, 노인복지, 마을공동체유지, 중소가족농을 위한 새로운 영역 창출, 생산공동체·도농공동체형성, 경제·복지·교육·문화 통합접근, 농촌공동체 재구축 등을 들 수 있음.

[표 23] 농촌노인일자리 유형의 분류기준표

구분	분류 기준
일자리 주체	농촌노인, 여성농민, 마을주민, 귀농귀촌인, 농민-귀농귀촌인, 농민-도시은퇴자
일자리 내용	로컬푸드, 농산물생산, 식품가공, 마케팅, 서비스, 귀농귀촌지원, 도농교류, 전통지식·기술 전수, 교육, 공동체 유지
일자리 목적	소득창출, 노인복지, 마을공동체유지, 중소가족농을 위한 새로운 영역 창출, 생산공동체·도농공동체형성, 경제·복지·교육·문화 통합접근, 농촌공동체 재구축

2. 농촌노인일자리 유형별 예시

앞장에서 제시한 농촌노인일자리의 분류기준(일자리 주체, 내용, 목적의 세 가지 구분과 각각의 기준) 각각의 조합에 따라 농촌노인일자리에는 수백가지의 다양한 유형이 창출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일자리 주체의 측면에서는 여성노인, 일자리 내용의 측면에서는 로컬푸드, 일자리의 목적 측면에서는 생산공동체를 지향하는 농촌노인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분류기준에 따른 수백가지의 일자리 유형은 일종의 이념형(ideal type)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장에서 일자리 유형을 예시하는데 있어서는 수백가지의 일자리 유형을 모두 제시하기보다 일자리의 주체, 내용, 목적 등 세가지 구분에 따라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하고자 함.

즉, 일자리의 주체가 강조되어 어떤 주체가 주도하느냐에 따른 대표적 유형, 일자리의 내용적 특징이 부각되어 무엇을 하는 일자리인가에 따른 대표적 유형, 일자리의 목적이 강조되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른 대표적 유형 등 10여가지의 농촌노인일자리 대표 유형을 아래표와 같이 제시하고자 함.

[표 24]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 유형 예시

[농촌노인일자리 주체에 따른 유형]

- 유형1. 여성농민 주도형
- 유형2. 노인 주체형
- 유형3. 고령농민·도시은퇴자 결합형
- 유형4. 마을주민기업형

[농촌노인일자리 내용에 따른 유형]

- 유형5. 로컬푸드 생산 거점형
- 유형6. 귀농귀촌 지원형

- 유형7. 영농·가공사업 연계형

[농촌노인일자리 목적에 따른 유형]

- 유형8. 경제, 복지, 교육, 문화 통합형
- 유형9. 도농공동체형
- 유형10. 마을공동체 유지형

[유형1] 여성농민 주도형

- 여성농민 주도형은 일자리에 있어서 남성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농민들이 자신의 장점을 살려 주도적으로 창출한 일자리에 여성노인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여성노인들이 주체가 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여성농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 인근에서 텃밭을 공동으로 일구어 지역내 학교급식, 생협매장이나 꾸러미 사업에 납품한다거나 여성노인들의 전통지식을 활용한 식품가공, 교육 등 다양한 일자리가 가능할 것임.
- 특히 갈수록 커져가는 농촌여성독거노인 비중을 감안하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농촌지역의 정서를 고려할 때 여성농민 주도형 일자리는 여성농민의 주체성을 발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농민과 여성노인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같은 유형의 대표적 사례로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언니네 텃밭사업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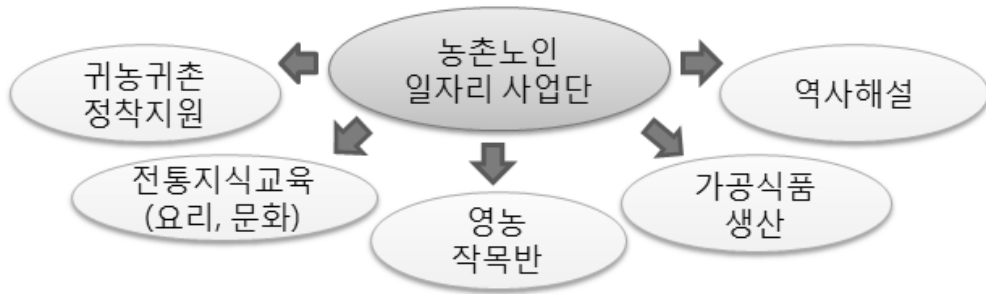
[그림 6] 여성농민 주도형 모형도



[유형2] 노인 주체형

- 노인주체형은 노인들이 자신의 기술과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를 창업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어머니 손맛이 느껴지는 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영농기술을 귀농귀촌인력에게 전수하고 정착을 지원하는가 하면 도시민·이주여성들에게 전통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지역의 역사를 해설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라고 할 수 있음.
-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먼저 정해놓고 어르신들 모집하고 등록받아서 사업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첫 시작부터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이같은 노인 자발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견학, 교육 등과 함께 경영지원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
- 이같은 유형으로는 강원도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손맛사업단’을 들 수 있는데, 어르신들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창업이 되다보니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험이 창의적으로 발양되어 사업 성공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농촌형일자리는 아니지만 노인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건강도 지키고 봉사도 하며 아울러 여생도 값지고 즐겁게 생활하고자 설립한 원주노인생협의 사례 역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그림 7] 노인 주체형 모형도



[유형3] 고령농민과 도시은퇴자 결합형

○ 결합형은 지역의 고령생산농가들 또는 마을공동체가 농장과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도시은퇴자들이 이곳에 입주하여 생활하며 노인일자리를 통해 일정한 소득도 창출하고 노령자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고령농민의 입장에서서는 도시은퇴자 하숙비로 농외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도시은퇴자와 연계된 먹거리 회원확보로 농산물 판매활성화, 농사체험활동 등으로 농촌노인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수확·포장 등에서 부족한 일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도시고령자의 입장에서서는 전원생활도 하면서 소일거리가 소득으로도 연계되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같은 유형으로는 홍성군의 은퇴농장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음.

[그림 8] 고령농민과 도시은퇴자 결합형 주요내용

고령농민		도시은퇴자
농작물생산관리, 영농지도, 농사체험 등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	⇔	수확, 소포장 등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	⇔	소일거리가 소득, 건강으로 연결
도시은퇴자와 연계된 먹거리 회원의 확보, 판매확대	⇔	유기농산물, 유기농식단을 통한 안정적인 식생활

[유형4] 마을주민기업형

○ 주민기업형은 노인들이 대다수인 마을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출자도 하여 기업을 만들고, 그 수익을 마을과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마을주민기업에 마을 어르신들을 고용함으로써 노인일job를 창출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마을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얼굴있는 먹거리로 도시 소비자와의 신뢰를 확보하며 농사체험 등을 통해 관계맺기로 확대해 나감.

- 이후 도시 소비자가 농촌마을기업에 출자도 할 수 있는 관계로까지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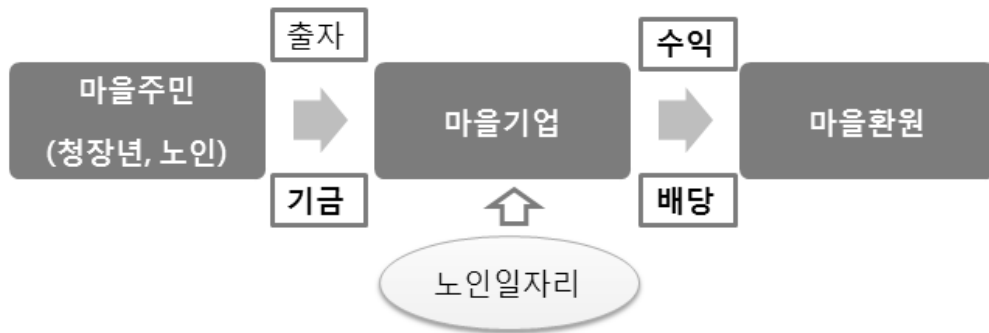
- 처음부터 마을기업화 하기 어려우므로 공모를 통해 마을만들기, 마을가꾸기 사업을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을 때, 주민들이 직접출자하고 지자체도 일부 지원하는 마을공동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함.

- 또한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창업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남성노인보다 이동수단의 제약이 심한 여성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농촌노인일자리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같은 유형으로는 오산시 잔다리마을공동체농업회사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창업되고 있는 다수의 마을기업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그림 9] 마을주민기업형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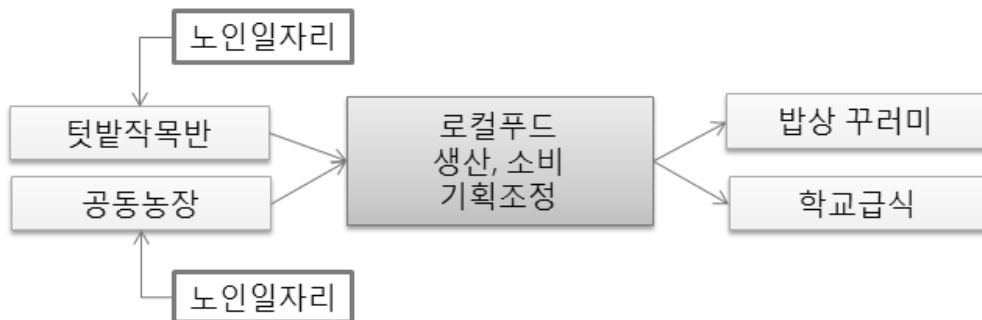


[유형5] 로컬푸드 생산 거점형

○ 로컬푸드 생산 거점형은 농촌노인들이 텃밭작목반이나 공동농장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건강한 밥상 꾸러미로 제공함으로서 다품목소량생산의 거점으로서 역할하는 농촌노인일자리 유형임.

- 공동체지원농업(CSA)의 한 형태인 꾸러미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회비로 내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갖가지 제철농산물을 공급하는 형태로 다품목소량생산체계에 적합함.
 - 또한 이같은 생산방식은 그동안 시장지향형 전업농 중심의 농정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농에게 적합한 방식이며 특히 농촌 노인들의 노동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을 인근 공동농장 또는 텃밭에서 농촌노인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껏 생산한 제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임.
- 또한 로컬푸드 생산 거점형은 지역산 먹거리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급급식에 공급하고 지역의 공공급식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농촌노인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같은 유형으로는 완주군의 두레농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언니네텃밭, 서천군의 얼굴있는 먹거리, 강화군 콩세알나눔센터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음.

[그림 10] 로컬푸드 생산 거점형 모형도



[유형6] 귀농귀촌 지원형

- 지원형은 농촌노인들이 귀농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시키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정한 기본소득도 유지하면서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한편 농촌노인들의 경우 영농사업이나 농산물 판매사업을 하는데 있어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귀농귀촌인들이 농촌노인들의 사업을 돕고, 농촌노인들은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즉 농사를 잘 아는 마을 어르신들이 협동농사로 친환경 영농을 맡고 기획, 관리, 마케팅, 생산가공, 정보화 등의 업무는 도시에서 그 일을 주로 하며 살아 온 귀농인이 맡아 하는 방법들이 가능할 것임.
-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귀농귀촌센터를 설립하고 빈집알선, 귀농학교 개설, 귀농자 멘토링, 귀농인의 이웃주민 초청행사, 귀농인 만남의 날, 귀농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이같은 유형의 사례로는 완주군의 두레농장, 홍성군의 은퇴농장, 옥천군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11] 귀농귀촌인 지원형 주요내용

농촌 노인		귀농귀촌인
친환경 협동농사	⇔	기획, 관리, 마케팅, 가공, 정보화
기획, 관리, 영농지도	⇔	생산, 가공, 마케팅, 정보화
귀농귀촌에 대한 멘토역할	⇔	농촌지역 정착

[유형7] 영농·가공사업 연계형

○ 연계형은 농촌노인들에게 전문성이 있는 영농사업과 가공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한기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농촌노인일자리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촌노인들께서 가장 잘하실 수 있는 일이 영농사업이지만 고령임을 감안할 때 젊었을 때처럼 생산성을 기대할 수는 없음. 하지만 노인들께서 혼자서는 힘들지만 공동으로 농사를 지으면 건강유지도 되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음.

- 또한 이를 가공식품과 연계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영농사업은 남성노인이, 식품가공은 여성농민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화로운 일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일자리가 거의 없는 겨울철 농한기에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예를 들어 콩 농사를 짓고 청국장, 된장을 만들거나 찹쌀, 깨 농사를 짓고 겨울에 강정을 판매하는 등 영농사업과 가공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임.

- 이같은 유형은 강화군 콩세알나눔센터, 대한 노인회 홍성군지회 상촌 농장 사례를 들 수 있으며, 노인면접조사 과정에서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제시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12] 영농·가공사업 연계형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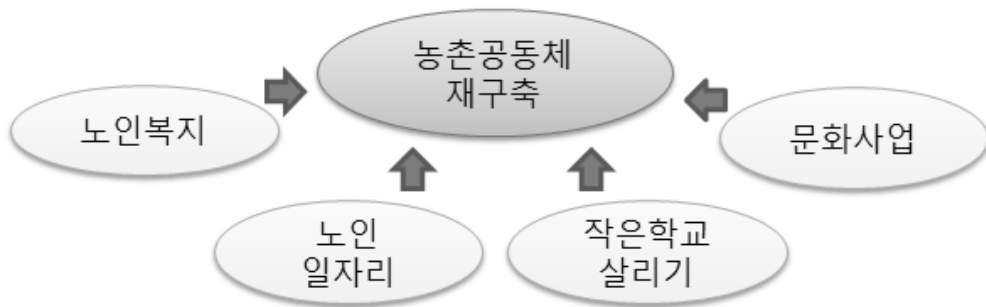
영농사업		가공사업
콩농사, 찹쌀농사, 깨농사	⇔	된장, 청국장, 강정
농번기	⇔	농한기
<u>남성 노인</u>	⇔	<u>여성 노인</u>

[유형8] 경제, 복지, 교육, 문화 통합형

- 통합형은 농촌노인일자리를 개별 일자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농촌공동체 재구축을 위한 하나의 부문으로 바라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 총체적 위기에 빠진 농촌공동체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종합혁신이 필요한데 노인일자리도 여기에 기여하고 함께 할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임.
- ‘복지가 복지에만 갇혀서는 안된다’는 말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복지 하나로 농촌공동체를 회생시킬 수 없으며 일자리 따로, 교육 따로, 문화 따로의 개별접근으로는 농촌공동체 활성화가 어렵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음.

- 이같은 유형으로는 영광군 여민동락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여민동락은 농촌노인복지 실천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이를 토대로 어르신들을 고용하여 떡가공 공장과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민들과 함께 폐교위기에 처한 작은 초등학교를 살리기 시작하였고, 야학 운영으로 조손가정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지역 공동체 부흥을 지향하고 있음.

[그림 13] 경제, 복지, 문화, 교육 통합형 모형도



[유형9] 도농공동체형

- 도농공동체형은 특히 도농복합지역에서 노인들이 대다수인 농촌마을 공동체와 도시민간의 관계맺기를 통해 상생하는 과정에 창출되는 농촌노인일자리라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농촌마을공동체와 도시민과의 끈끈한 교류를 통한 신뢰로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을 제공하거나 마을 잔치에 초대하기도 하고 여름철 휴가시 숙소를 제공한다는가, 은퇴후 정착지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임.
- 이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 영농과정 체험 및 시범, 음식만들기 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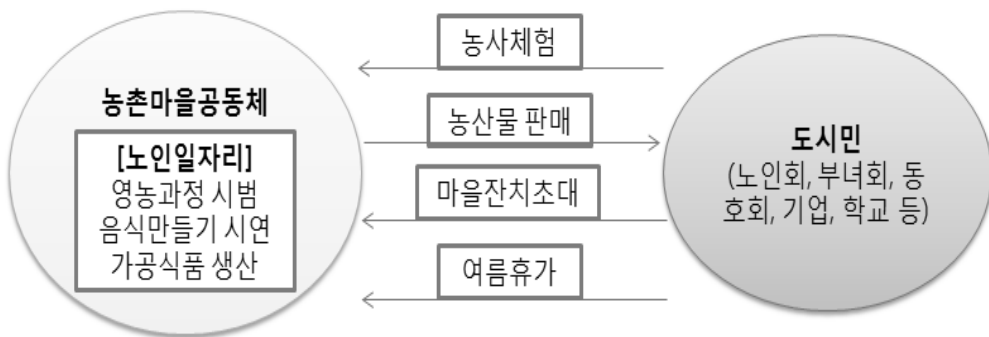
된장이나 청국장, 강정 만들기 교육 및 가공품생산 등에 마을 어르신들을 고용함으로써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마을 출신의 도시민들과도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언제든 고향마을에 내려와 정착할 수 있도록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대전 중세동 마을기업의 경우 마을 총회에 도시에 나간 고향청장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판매가공사업도 공공으로 모색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음.

- 또한 농촌노인과 도시노인간 일자리도 연계할 수 있는데 농촌노인들이 유정란을 생산하고 이를 도시지역의 은빛 어르신 아파트 택배를 이용해 배달하는 등 다양한 연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이같은 유형의 대표적 사례로는 오산시 잔다리마을공동체농업회사, 홍성군 은퇴농장, 대전 중세동 마을기업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14] 도농공동체형 모형도



[유형10] 마을공동체 유지형

○ 마을공동체 유지형은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와 농촌지역사회를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농촌노인일자리로 만든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농촌은 마을에 가게가 하나도 없어 읍면시장까지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한 달 내내 두부 한 번 먹어보지 못하고 집 앞 푸성귀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필요물품 구매와 같은 노인들의 소소한 심부름거리를 대행해주거나 이동장터 운영 등 농촌마을이 유지되는데 작지만 필요한 일들을 해주는 노인일자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현재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에 속해 있는 공익형 일자리는 공동으로 인식되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이를 그 목적에 부합하게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공익성 활동에 활용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같은 유형은 영광군의 여민동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민동락은 마을에서 사라지고 있는 구멍가게를 살리기 위해 동락점빵을 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모든 마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음. 마을 어르신 2~3분을 고용해서 교대로 가게를 운영하되 큰 수익을 바라지 않는다면 어르신 소일거리도 되고 가게조차 사라져버린 마을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임.

[그림 15] 마을공동체 유지형 모형도



제3절 농촌노인일자리 추진 방식

1. 주체발굴 및 사업조직의 단계별 육성

○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은 노인일 자리를 마련할 주체의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주체의 발굴 및 육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나르고 있음.

- 농촌노인일자리사업체 또는 농촌노인을 일부 고용하는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는 주체(생산자, 귀농자, 사회적기업가 등)가 발굴되고 육성되어야 농촌노인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농촌공동체의 복원과 다양한 농업회생 전략과 연계하기 위해서도 주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우선 지역내 주체의 발굴·육성이 필요함.

- 농촌지역내에서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체를 설립하여 노인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를 발굴 육성하는 것임.

- 특히 고령여성의 전통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주체의 육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영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내 주체의 경우 외부인력보다 상대적으로 지역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가능하며 농촌노인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확보하는데도 용이하므로 지역내 주체의 발굴육성이 중요함.

○ 다음으로 귀농인력의 정착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

- 현실적으로 농촌지역내 경영주체가 많지 않은 여건에서 귀농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이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귀농인력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에 대한 적응과정도 거쳐야 하고 일정기간 소득도 마련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
 - 첫째, 귀농 1, 2년차 초기에는 마을 사무장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귀농 3년차 이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 주민들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둘째, 중간지원조직, 마을기업, 일자리사업단 등에서 농촌노인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획, 정보, 마케팅 등 분야에서 노인들과 보완적 관계하에 일하며 농업농촌을 배우고 일정한 소득도 얻으며 정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 끝으로, 사업조직을 단계별로 육성할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의 경우 처음부터 마을기업화 하기 어려우므로 공모를 통해 마을만들기, 마을가꾸기 사업을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을때 주민들이 직접출자하고 지자체도 일부 지원하는 마을공동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함.

2.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인큐베이팅

- 농촌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 주체들이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중간지원조직이 요구됨.
- 첫째, 중간지원조직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체에 대해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지원, 회계 등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가공, 유통, 마케팅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담당해야 함.
- 둘째, 중간지원조직은 생산과 소비 조직화와 판매유통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경영체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해야함.
 - 이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영체의 경우 시장경제 영역하에서 타경영체와의 경쟁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임.
 - 기존 시장형 상업농 체계에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중소농을 위해 새롭게 로컬푸드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완주군의 경우에도 지역 경제순환센터를 거점으로 다품종소량생산체계를 위해 생산을 조직하고, 건강밥상꾸러미를 통한 판매를 위해 소비자를 조직하며, 원활한 물류를 위해 유통을 조직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셋째,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함.
 - 농촌노인일자리사업에 특화된 중간지원조직이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다양한 농촌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마을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농촌노인일 자리를 연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 넷째,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현재 사회적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이 있으나 사회적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원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이는 시군단위의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임.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시군단위 실정에 맞는 좀더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농촌지역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을 지원하고 경영체가 지속가능한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갈 필요가 제기되는 것임.
- 한편, 특화된 농촌노인일자리사업체는 아니지만 농촌노인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촌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농촌노인을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노인 친화기업을 대상으로 1년 되는 시점부터 고용한 노인의 임금을 일정 부분 지원함(1년 되는 시점: 20%, 2년 후: 30%)

3. 네트워킹 강화

-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원을 하나로 묶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네트워킹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사회 다양한 조직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공동의 노력과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지역 노인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사업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보건·복지 관련 기관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내 영향력있는 주민조직을 통해 지역문제에 대한 자발적 해결을 지원하며,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자원봉사 및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고 있음.

○ 끝으로, 노인문제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관 등과 협동사업추진 또는 연계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사회내의 이장단, 부녀회, 청년회 등 지역주민조직과 농민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마을내에서 스스로 해결토록 하는 방식이고 외부에서는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함.

4. 노인 자발적 모임의 활성화

○ 우선, 노인들의 자발성을 향상시키고 공생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자발적 노인모임을 활성화해야 함.

- 마을을 사랑하는 어르신모임, 강 지킴이, 마을별 동아리(실버모임) 등 다양한 자발적 모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임을 컨설팅하고 지원해야 함.

- 자발적 모임을 통해 노인복지, 일자리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지역내에서 스스로 해결토록하며 외부에서는 자원만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자발적 모임의 활성화는 농촌노인들의 주인의식과 자발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농촌지역내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의 기본토

대가 될 것임.

- 다음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일자리 관리감시 중심에서 자발적 역량강화 지원으로 전환해야 함.

- 현재 정부 일자리사업의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자가 일자리에 노인들이 출석했는지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행정업무 처리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전환해 자발적 모임을 컨설팅하거나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함.

5. 지속적인 교육사업의 전개

- 농촌지역내 노인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농촌사회에 쌓여있는 패배주의, 해박야 안된다는 절망과 부정의 심리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히 농촌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요인이 노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있기에 이같은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대농민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견학 등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것임.

제7장 제언

이 장에서는 농촌노인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6장에서 제시한 방향과 유형분류, 추진방식에 이어 실제 농촌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체들에게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1. 정부·지자체에 대한 제언

우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실제로 2004년부터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촌노인 일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공익형 사업의 경우 ‘공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부재가 가장 큰 이유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물론 타업무를 겸하면서 행정실무중심으로 사업할 수 밖에 없는 업무구조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 여건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유 역시 농촌지역의 특수성과 농촌노인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농촌노인일자리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현안인 농촌지역 노인들의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임과 동시에 해체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유력한 방안중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노인일자리 자체예산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충남지역의 경우 도 자체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과 창출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0년 국비미지원일자리(광역, 기초지자체 예산만 활용) 창출실적을 도별로 비교해보면, 충남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도차

원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의지가 타지역에 비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農道인 충남도의 경우 농촌지역에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는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하여 충남도 농촌지역 회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둘째, 일자리 사업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재 농촌지역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농촌지역의 사회적일자리는 결국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인 여성, 노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목적의식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야 함.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을 선정할 때 지역 노인들의 일자리마련 계획의 현실타당성에 가산점을 부과하거나 또는 농촌 노인을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노인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등 사업연계가 가능할 것임.

또한 로컬푸드와 같은 중소가족농을 위한 새로운 경제영역의 창출은 지역 농식품순환체계를 만드는데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꾸러미 사업, 학교급식, 농민장터 등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완주군의 두레농장처럼 농촌지역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투입속에 농촌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개발사업이 단순한 시설투자에 그치지 않고 노인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임.

마을개발사업을 통해 시설만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농인을 유치하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마을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귀농인의 경우 귀농 1,2년차 초기에는 마을 사무장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토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마을 주민들과 마을기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셋째, 경제, 복지, 문화, 교육, 농업 등 관련부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사회적 기업은 경제과 담당, 노인복지는 복지과 담당, 농업문제는 농정과 담당, 교육문제는 교육과 담당, 이같은 부처개별적 접근방식으로는 농촌노인 일자리사업은 물론이고 농업농촌의 회생과 농촌공동체의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임.

특히 농촌노인일자리사업 역시 농업농촌 회생과 농촌공동체 복원을 위한 여러 사업중 하나의 부문으로 바라보고 긴밀한 연계속에 전개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또한 이같은 인식하에 자리매김할 때 농촌노인일자리사업이 복지부서의 단순행정업무로 전락하지 않게 될 것임.

예를 들어 지자체내에서 사회적일자리창출, 농촌노인일자리, 지역먹거리, 농촌노인복지, 농촌교육 등 농촌지역이라는 공통의 대상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들간의 협의의 틀을 구성하여 부서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넷째, 노인일자리사업체를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사업체가 지속가능하고 자립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중간지원조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기존 시장경제 영역하에서 타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함. 따라서 이를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것임.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는 노인일자리를 위해 특화된 시니어클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에서 농촌노인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충남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민간주도의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의 육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와 함께 시니어클럽을 육성하여 일자리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농촌지역에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할 경우 농촌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다섯째,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주체 발굴이 중요함.

자원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주체 발굴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흐름을 적극 활용한다면 농촌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혁신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귀농귀촌인의 경우 기획, 관리, 마케팅, 정보화 등에 장점이 있는 반면 농업농촌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낮으므로 지역사회의 고령농민, 마을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귀농귀촌인의 경우 초기에는 마을사무장, 중간지원조직, 또는 농촌노인일자리에서 기획, 관리 등의 업무를 보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지역내에서 신뢰를 쌓으며 지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임.

또한 지역내에서 사회적 일자리 또는 지역먹거리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농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열악한 자원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임.

지역 내 보건복지 관련 기관간의 협약체결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 내 영향력있는 주민조직을 통해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을 지원하며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자원봉사 및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고 있는 지역노인보건복지 분야의 네트워크 사업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정부 일자리사업의 개선이 필요함.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도 개선점이 필요한데, 우선, 일자리 관련 사업선정 및 지원시 ‘지역의 요구와 필요성, 지역주민과의 신뢰 확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여부 또는 계획타당성이 사업선정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함.

다음으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요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주의에 의거한 재정투입우선방식은 공동체성과 자발성을 파괴할 뿐 지속가능하고 자립적 노인일자리사업체를 육성하기 어렵게 만들 것임. 재정지원 또한 사업 초기 시설비, 운영비만 최소로 지원하고 몇 년내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평가에 있어 효율성, 효과성 등 실적위주의 정량적 평가를 지양해야 함.

또한, 현재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민간영역의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이 있으나 단순한 행정업무 등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공익형 사업단은 교육형, 복지형만 할 수 있고 시장형 사업단은 시장형사업만 하도록 구분할 것이 아니라 사업유형별로 섞일수 있도록 경계를 허무는 것이 필요함.

끝으로, 농촌형사회적기업은 농촌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총시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켜나가야 함.

현재 농촌지역의 고령화 여건과 이후 더욱 심각해질 상황을 고려할 때 농

촌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며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전국적 범위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충남도의 노인일자리 사업 실태를 감안할 때 노인특구 지정 등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일반화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일자리 사업 주체에 대한 제언

우선,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회, 사회적기업 등 농촌지역내 일자리 사업 주체들이 농촌노인일자리가 개별 일자리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무너지가는 농촌공동체를 되살리는데 중요한 사업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한다’는 또 하나의 행정업무 집행 대행 차원이 아니라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업이며,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하에 주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다양한 사업주체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관련 지식에 대한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모범사례 현장견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자부심을 갖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 지자체의 교육사업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

둘째, 농촌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농업농촌을 희생하려는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통합적 접근전략이 필요함.

‘복지가 복지에만 갇혀서는 안된다’는 말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복지 따로, 일자리 따로, 교육 따로, 문화 따로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열악한 자원환경하에 있는 농촌지역에서 농촌공동체 활성화는 더디기만 할 것임.

따라서 농촌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사회적 일자리, 로컬푸드,

노인복지, 작은학교살리기 등 여러방면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를 위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연대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마련하고 농촌지역내 제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지자체의 경우도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조직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정책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셋째, 일자리 사업기관의 사업 추진시 노인 자발적 참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실제로 농촌노인일자리사업이 자립적이고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노인들의 주체적인 참여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생경험과 노하우가 창의적으로 발양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특히 농촌 노인들의 경우 농사, 식품가공, 전통기술 등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노인 스스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 참여노인들의 자발성이 발양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손맛사업단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임.

아울러 마을을 사랑하는 어르신 모임, 강 지킴이, 마을별 동아리(실버모임) 등 노인들의 자발적 모임을 활성화하고 이 모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이는 주체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일자리 관리감시 중심에서 자발적 역량강화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넷째, 지역사회와의 소통, 생산자·소비자간의 신뢰와 믿음은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큰 토대가 될 것임.

농촌노인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경영효율을 통한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믿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사

회를 위해 의미있는 일이라는 합의가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또한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무한경쟁의 시장질서하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와 믿음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 경영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지역에서 마련된 일자리가 일자리에 참여한 사람들만을 위한 일자리에 그치기보다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서, 참여노인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사업체가 자립해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농촌노인복지사업을 하면서 노인일자리로 모시송편 제조가공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영광군 '여민동락'은 그 밖에도 농촌학교살리기운동, 큰들야학, 김장나눔축제, 찾아가는 주치의, 사랑나눔공연 등 면단위 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고 도시소비자와 신뢰를 쌓고 있는데 이는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임.

충남 농촌노인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며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10년 현재 읍면지역의 고령화율은 20.9%이고 동지역의 고령화율은 9.1%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도시보다 두배 이상이나 된다. 또한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1.8%로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1.3%보다 약 3배나 높은 실정이다.

충남도의 경우에도 도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편차가 커서 계룡시와 천안시의 고령화율은 각각 7%, 8%에 불과한데 비해 부여(29.1%), 서천(30.1%), 청양(32.4%) 등 군지역의 경우 3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현재 읍면지역의 고령화율 평균은 20.5%이고 동지역의 고령화율 평균은 7.9%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2.6배 높으며 65세이상 인구중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79.7%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급격한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축소시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연금·의료비 등의 복지관련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간 갈등의 소지마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 및 빈곤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 기준 우리나라 75세 이상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8.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소득빈곤율(2009년)이 45.1%로 OECD 국가중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 4대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빈곤', '질병', '역할없음', '고독'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건강 증진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여건은 매우 취약하며 이에 대한 선행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농가경제의 악화, 농촌빈곤의 확대 등 우리 사회 농촌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열악함은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노인문제 해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농촌노인들의 특징과 요구에 부합하는 일자리 활성화 방향을 마련하며, 사례분석을 통한 유형화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개별 일자리 창출을 넘어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의 통합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촌노인일자리 사업수행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농촌노인들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조사(FGI),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농촌노인 일자리 12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2. 노인일자리 현황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의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지만 현황 부분에 있어 전반적인 노인일자리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기에는 자료와 연구기간이 부족하므로 부득이하게 정부와 충남도의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일자리 의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인 연속성과 공간적인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서 단편적인 활동내용 중심의 일거리와 구분되는 것이며, 사회의 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로서 교육, 의료, 사회복지, 환경, 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2)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요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령층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까지 총 1조 1,4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총 21만 6,44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과 예산의 국고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사업을 총괄하며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일선의 사업수행기관은 참여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하도록 한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방식이다.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은 참여노인 1인당 7개월간 20만원의 급여가 제공되고 사업관리를 위한 부대경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다.

3) 노인일자리 사업실적

전국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속한 지역은 대도시가 전체의 40%, 중소도시 38.9%, 농어촌 지역은 21.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교육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인력파견형 등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 여건이 매우 취약함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사업참여 동기는 생계비 마련이 59.0%, 용돈 마련이 18.6%로 대다수인 77.6%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참여노인은 1만 3,689 명이고 일자리는 1만 2,347개이며 충남도 노인인구 대비 일자리 참여율은 4%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전국평균 3.9%와 비슷한 비율이다.

하지만 국비미지원일자리(광역, 기초지자체 예산만 활용) 창출실적을 도별로 비교해 보면, 충남도는 충북도와 함께 최하위를 나타내어 국비의존도가 높고 자체 예산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집행결과를 비교해보면, 충남도는 국비의 비중이 전국평균(41.4%)에 비해 높은 46.4%로 나타났으며, 시도비의 비중은 충남이 14.4%로 전국평균 시도비 27.5%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군비의 비중은 충남도가 39.2%로 전국평균(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자리에 투입된 지방비와 민간부담액 합계에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업(시도비와 시군비로 사업)의 예산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충남도는 8개도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충남도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4)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한계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1조 1,4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총 21만 6,44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거두었다. 하지만 노인들의 욕구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공돈'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발생하는가 하면 사회적일자리사업과의 유기적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만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한데, 이는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상 사업수행주체가 부족하고 일자리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등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공익형 위주의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인일자리에는 농촌공동체의 붕괴와 농업의 어려

움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공동체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사회의 조건하에서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노인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일자리사업으로 국한하기보다 농촌공동체 재구축, 지역농업농촌혁신전략, 사회적일자리 창출흐름과의 연계속에 좀더 폭넓게 고민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농촌노인일자리와 특징과 실태

1) 농촌노인들의 일반적 특징

농촌노인들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빈곤층이 늘고 있다.

노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노후대비보다는 주로 자식들의 교육, 결혼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왔으며 특히 농촌노인들은 자녀들을 교육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진출시켜야 하므로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

절대 빈곤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인 가구당 월 49만 845 원)에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의 비중인 농가의 빈곤율 분석결과 2004년에는 9.1%였으나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9년 19.6%로 절대빈곤층이 농가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대부분이 노인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농사만큼은 박사급이다

80세 고령의 노인들도 마을에서 동네 어른들과 함께 소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특히 평생 업으로 삼아온 농사 전문가 이다보니 영농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면접조사 과정에서 고령인 경우에도 혼자서는 농사일 하기가 힘들지만 협동농사, 공동농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셋째, 도시 노인보다 교육수준이 훨씬 낮다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농촌지역 고령자의 교육수준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무학의 비율이 동지역은 19.7%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36.3%로 두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은 동지역이 55.1%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70.7%에 달했으며 중졸이하 학력도 동지역이 71.1%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8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만성질환 한두개씩은 달고 산다.

대부분의 농촌 노인들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경희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노인들의 91.9%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농촌노인도 5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조사(2008년)에 따르면, 농민들의 근골격계 질환은 농업인(62%)이 비농업인(25%)의 2.4배 수준이며, 농부중은 전체농민의 36.2%, 비닐하우스 증후군은 18.8%, 농약중독율은 면지역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노인단독세대, 특히 여성독거노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노인혼자 또는 노부부끼리 사는 노인단독세대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이같은 추세는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지는데 박대식(2009)의 65세 이상 농촌노인에 대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혼인상태는 유배우자(52.8%), 사별(46.6%), 별거 또는 이혼(0.4%)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는 노인단독(35.9%), 노인부부(43.9%), 자녀 동거(19.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거노인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2005)에 따르면, 농촌의 남성독거노인이 34.2%, 여성독거노인이 45.0%로 도시에 비해 1.5배에서 2배정도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농촌노인일자리의 실태

농촌노인일자리의 실태를 몇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라도 없으면 TV보고 화투치는거 외에 할게 없는 상황이다.

평생농사만 지어오신 농촌노인들의 경우 독서 등 다른 취미를 갖고 있는

경우도 별로 없고 교통편 등 이동수단의 제약으로 도시노인처럼 다닐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영농이나 다른 일자리라도 없으면 집이나 경로당에서 TV 보거나 화투치는 거 외에 할 일이 없다는 게 농촌노인들의 하소연이다.

둘째, 특히 농한기에 할 일이 없다.

개인농사도 10월이면 끝나고 공익형 일자리도 대개 10월, 11월이면 마무리되는데 농한기에는 더욱 할 일이 없다.

셋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좋다.

교통편 등 이동수단의 제약에 따라 마을단위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에서 소일하며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남성노인들의 경우 그나마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면단위까지 이동하기도 하지만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수단이 더욱 부족하여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넷째, 월 10만원만 벌어도 일하는게 낫다.

본 연구과정에서 수행한 면접조사에서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그리고 일자리 참여 노인들 모두 일자리 참여에 따른 만족도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나라에서 한달에 20만원 주는게 어디냐'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다. 흥성의 한 영농작목반의 경우 정부 지원금(시장형노인일자리) 포함해서 15명의 영농작목반원이 한달에 10만원씩 용돈 벌이하는 수준인데 그래도 공동농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일에 대한 요구가 강하였다.

다섯째, 혼자서 못해도 협동하면 가능하다

영농작업의 경우 혼자하기에는 힘들어 젊었을때처럼 할 수는 없지만 노인들이 협동해서 하면 가능하고 재미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섯째, 역시 판로하고 가격이 문제다.

영농작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이와 연계한 소규모 가공식품 생산도 농촌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판로와 가격이다.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생산해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고 생산비가 보장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3) 농촌지역의 특수성

농촌노인일자리의 지역적 특수성을 살펴보면, 우선 농촌지역은 노인일자리의 여건이 취약하다.

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은 농촌일자리 사업수행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도시에 비해 일자리의 다양성이 떨어지며 특히 민간 영역의 사업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농촌지역은 생활권의 분산과 이동수단의 제약으로 농촌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도로 및 교통여건은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되어 농촌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읍단위에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보다 면단위, 마을단위에 작은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농촌노인일자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촌지역의 일자리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농사일 자체가 계절적 주기를 갖게 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특히 겨울철 농한기에는 일할 수 있는 꺼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농촌공동체 존립의 위기는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애기 울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농촌사회는 심각한 고령화속에 공동화현상이 발생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현재 농촌은 잘나지 못해 도시로 떠나지 못한 사람과 도시로 갔다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새롭게 무슨 일은 시작하려해도 해봐야 안된다는 패배의식이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경영체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농촌지역내 주체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4. 농촌노인일자리 사례분석

아래표와 같이 총 12가지 농촌노인일자리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사례 10(보은, 해남, 홍성)의 경우 성과가 미약하거나 실패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여서 기타로 정리하였다.

농촌노인일자리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 사회의 여건에서 농촌공동체를 재구축하고 지역농업농촌 회생에 기여하며 농촌노인일 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다양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노인일 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농업재편전략, 마을 기업·사회적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커뮤니티비즈니스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회적일 자리 창출흐름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25] 농촌노인일자리 사례

- 사례1. 완주군 두레농장 - 지역농업 재편전략속에 로컬푸드 생산 거점역할
- 사례2. 영광군 여민동락 할매손 - 농촌공동체 복원과 부흥을 목표
- 사례3. 언니네 텃밭 - 여성농민이 주도하는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
- 사례4.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손맛사업단 - 어르신들 자발적 참여와 운영
- 사례5. 홍성군 은퇴농장 - 고령농민과 도시은퇴자의 상생모델
- 사례6. 옥천군 산계들 친환경영농조합 - 농촌노인·귀농인의 상생공동체
- 사례7. 강화군 콩세알나눔센터 - 노인·젊은이가 함께하는 생산공동체
- 사례8. 서천군 얼굴있는 먹거리 - 지역먹거리와 노인일 자리의 연계
- 사례9. 오산시 잔다리 마을공동체 농업회사 - 도농 공동체형 마을기업
- 사례10. 기타 (보은군, 해남군, 홍성군)

5.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1)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방향

첫째, 농촌공동체의 재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심각한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있는 농촌사회는 이미 아기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마저 돌아가시면 마을공동체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노인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농촌지역 다수인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건강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도 대비함으로서 농촌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이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공동체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에서 농촌노인들의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시장경제가 담당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제영역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중소농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여 기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영역을 창출하는 지역농업 혁신전략과 연계함으로서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같은 지역농업의 새로운 영역은 로컬푸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일 자리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전통문화, 역사와 교육, 음식문화 등 농촌노인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식을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복지·교육·문화 측면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농촌의 위기는 소득감소, 빈곤 확대, 학교 폐교 등 경제, 복지, 문화 측면의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노인들의 일 자리를 마련하는 개별사업차원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회생전략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즉, 노인복지 따로 일자리 따로 마을개발사업 따로 사회적기업 따로 로컬푸드 따로가 아니라 농업농촌 회생이라는 하나의 목표하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농촌 노인의 자발성과 지역사회와의 공생성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노인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개발업자들이 주도하고 시행하는 하향식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민간주도로, 그리고 민간영역에서도 사업수행기관보다는 일자리 수행 노인들이 중심이 되는 운영체계가 확립될 때 사업의 성과도 높을 뿐 아니라 참여 노인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사회는 자원이 열악하므로 개별보다 협동이 더욱 중요한데, 노인일자리 역시 지역의 주요 현안이며 지역 미래세대의 문제이므로 지역과의 공생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적일자리 부실문제가 심각히 거론되고 있는데 농촌노인일자리 역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다면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이 심각히 훼손 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삭감시 경영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울수 있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조직화와 판매유통 시스템의 마련, 농사를 잘아는 농촌노인과 기획관리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귀농인력의 협동, 어머님 아버님의 정성이 담긴 상품, 얼굴있는 농산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관계맺기 등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농촌지역특성과 농촌노인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농촌노인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이 갖는 특수성과 농촌지역 노인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일자리 창출방안을 세워야 한다.

농사전문가로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삶의 경험을 전승할 수 있는 일

자리,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농한기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 마을회관이나 정자에서 소일하며 할 수 있는 일자리, 여성노인들의 노동력과 전통지식을 활용한 일자리, 지역의 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일자리 등 농촌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2) 농촌노인일자리 유형별 분류

농촌노인일자리 유형별 분류기준

우선 농촌노인일자리 유형은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일자리주체, 일자리내용, 일자리목적 등의 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분류하였다.

[표 26] 농촌노인일자리 유형의 분류기준표

구분	분류 기준
일자리 주체	농촌노인, 여성농민, 마을주민, 귀농귀촌인, 농민-귀농귀촌인, 농민-도시은퇴자
일자리 내용	로컬푸드, 농산물생산, 식품가공, 마케팅, 서비스, 귀농귀촌지원, 도농교류, 전통지식·기술 전수, 교육, 공동체 유지
일자리 목적	소득창출, 노인복지, 마을공동체유지, 중소가족농을 위한 새로운 영역 창출, 생산공동체·도농공동체형성, 경제·복지·교육·문화 통합접근, 농촌공동체 재구축

농촌노인일자리 유형별 예시

앞에서 제시한 농촌노인일자리 분류기준(일자리 주체, 내용, 목적의 세가지 구분과 각각의 기준) 각각의 조합에 따라 농촌노인일자리는 수백가지의 다양한 유형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류기준에 따른 수백가지의 일자리 유형은 일종의 이념형(ideal typ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백가지의 일자리 유형을 모두 제시하기보다 일자리의 주체, 내용, 목적 등 세가지 구분에 따라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일자리의 주체가 강조되어 어떤 주체가 주도하느냐에 따른 대표적 유형, 일자리의 내용적 특징이 부각되어 무엇을 하는 일자리인가에 따른 대표적 유형, 일자리의 목적이 강조되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른 대표적 유형 등 10여가지의 농촌노인일자리 대표 유형을 아래표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27]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 유형 예시

<p>[농촌노인일자리 주체에 따른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1. 여성농민 주도형 ■ 유형2. 노인 주체형 ■ 유형3. 고령농민·도시은퇴자 결합형 ■ 유형4. 마을주민기업형 <p>[농촌노인일자리 내용에 따른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5. 로컬푸드 생산 거점형 ■ 유형6. 귀농귀촌 지원형 ■ 유형7. 영농·가공사업 연계형 <p>[농촌노인일자리 목적에 따른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8. 경제, 복지, 교육, 문화 통합형 ■ 유형9. 도농공동체형 ■ 유형10. 마을공동체 유지형
--

3) 농촌노인일자리 추진 방식

첫째, 주체발굴 및 사업조직의 단계별 육성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은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주체의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주체의 발굴 및 육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내 주체의 발굴·육성이 필요하다.

농촌지역내에서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체를 설립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고령여성의 전통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주체의 육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귀농인력의 정착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농촌지역내 경영주체가 많지 않은 여건에서 귀농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이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사업조직을 단계별로 육성할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인큐베이팅이 중요하다.

농촌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 주체들이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중간지원조직이 요구된다.

우선, 중간지원조직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체에 대해 창업과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가공, 유통, 마케팅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담당해야 하며, 생산과 소비 조직화와 판매유통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경영체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해야한다.

다음으로, 농촌노인일자리사업에 특화된 중간지원조직이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다양한 농촌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마을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농촌노인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끝으로, 농촌지역의 경우 환경이 열악하므로 시군단위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한편, 농촌노인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촌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트워킹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원을

하나로 묶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네트워킹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경제, 복지, 교육, 문화 등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공동의 노력과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 노인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사업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문제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노인복지관 등과 협동사업추진 또는 연계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사회내의 이장단, 부녀회, 청년회 등 지역주민조직과 농민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마을내에서 스스로 해결토록 하는 방식이고 외부에서는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 자발적 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노인들의 자발성을 향상시키고 공생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자발적 노인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을을 사랑하는 어르신모임, 강 지킴이, 마을별 동아리(실버모임) 등 다양한 자발적 모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임을 컨설팅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촌노인들의 주인의식과 자발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농촌지역내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의 기본토대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일자리 관리감시 중심에서 자발적 역량 강화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정부 일자리사업의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자가 일자리에 노인들이 출석했는지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행정업무 처리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전환해 자발적 모임을 컨설팅하거나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농촌지역내 노인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농촌사회에 쌓여있는 패배주의, 해박야 안된다는 절망과 부정의 심리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촌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요인이 노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있기에

이같은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기철(2011). “한국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복지동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1). “20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 박진도(2011).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 교우사
- 정기석(2011).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 기업”. 이매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사회적기업과 농촌지역 활성화”. 농촌 사회적기업 국제세미나 자료집
- 남기철 외(2010).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NGO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과 : 삼성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을 중심으로”. 함께일하는재단
- 김준환(2010). “노인일자리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제20집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0). “노인일자리사업의 진단과 질적 성장방안 모색”. 제16차 노인일자리 전문가 포럼 자료집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0).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잠재적 가치에 관한 연구”. 제15차 노인일자리 전문가 포럼 자료집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0). “2010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평가”
- 충청남도 및 각 시군(2010). “충청남도 및 각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 국회의원 강기갑(2010). “농어촌 노인복지개선과 사천 노인종합복지타운추진 심포지움”. 자료집
- 최성일 외(2009).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서헌주(2009). “충남지역 시니어클럽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조직운영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박대식 외(2009).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지은구(2009). “노인 일자리사업 정착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방안”. 사회
과학논총 제28집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2009).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보건복지가족부

국회의원 임두성(2008).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 입
법 공청회” 자료집

박은미(2008).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성별영향평가분석”. 경북여성정책개발
원

박대식 외(2006).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김진덕(2006).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충북지역 고령인구의 인적자원 개발방
향”. 충북개발연구원

이인제(2005).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 복지동향

강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2005). “고령사회 대응 강원도 노인인력활용 방
안”. 강원발전연구원

이은아 외(2005).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성별영향평가 : 노인 일자리 사업
을 대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강문구 외(2005). “강원도 노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강원도여
성정책개발센터

이은구 외(2005). “대전시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
부

이인재(2005). “고령화시대의 고령자 고용촉진과 노인일자리”.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박태영 외(2005). “고령화시대 농촌지역의 치매노인 복지대책”. 대구경북연구
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5). “농촌·도시 노인의 삶

의 질 비교분석”

박대식(2004).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4).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장창원 외(2003). “고령화사회의 인적자원정책 :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2002). “농촌여성노인 복지 정책방향”

[부록 1] 농촌노인일자리 면접조사 질문내용

[표 28] 사업수행자 심층면접 질문내용

질문	세부내용
1. 사업을 시작한 취지와 배경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 사업체의 목표는 무엇인가? - 사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사업체의 수익은 어떠한가?
2. 정부/지자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가? - 지원 전/후 사업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3.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일자리는 어떤 취지로 고민하게 되었는가? - 노인들의 일자리 종류는 어떠한가? - 노인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가? - 노인들의 고용형태, 근무형태는 어떠한가? - 노인들의 임금수준은 어떠하며,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노인 일자리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4.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들은 사업체의 일자리를 어떻게 생각 하는가? - 노인들이 사업체의 일자리에 대해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5. 정부 및 지자체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정부 및 지자체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표 29] 농촌노인 표적집단면접 질문내용

질문	세부내용
1. 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나이, 학력, 종교, 동거인 여부, 주거형태 - 현재 주 소득원은 무엇이며, 월 생활비는 얼마 정도인가? -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 건강상태는 어떠한가? - 일하는 시간 외에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가?
2.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동안 가졌던 직업이나 좋아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 노인들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 - 어떤 종류의 일을 원하는가? - 가능한 노동강도와 원하는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 원하는 임금수준은 어떠한가?
3.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무엇인가? - 일자리의 소득은 어떠한가? - 일자리의 근무형태는 어떠한가? - 일하는 시간은 1년에 몇개월/주당 몇일/하루 몇시간인가? -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4. 일을 한 이후의 변화는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하고 난 후 생활상의 변화는 무엇인가? - 일을 하고 난 후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는가? - 일을 하고 난 후 사회적 관계가 달라졌는가? - 일을 하고 난 후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상태가 변화되었는가? - 일을 하고 난 후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는가? - 일을 계속할 생각인가?

질문	세부내용
5. 농촌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은 흥미가 있는가? - 노동 강도와 근무시간은 적당한가? - 쉬는 시간은 적절한가? -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 사업장까지 교통수단은 어떻게 이용 하는가? - 동료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사업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소속기관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일에 대한 기술 및 전문성의 어려움은 없는가? -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주변이목은 어떠한가? - 일에 대한 교육훈련은 만족스러운가?

[표 30] 전문가 자문 인터뷰 질문내용

질문	세부내용
1. 현행 노인 일자리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는 무엇인가? -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무엇인가?
2. 농촌 노인 일자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의 특성은 무엇인가? - 농촌 노인의 특성은 무엇인가? - 농촌 노인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3. 노인 일자리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사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일자리는 지역농업농촌 활성화와 어떻게 연계되는가? - 노인 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 실현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 노인 일자리는 마을개발사업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질문	세부내용
4. 정부 및 지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 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장경호 부소장

공동연구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이호중 연구기획팀장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박지은 연구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홍영석 연구원

전략연구 2011-10 · 충남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글쓴이 · 장경호 · 이호중 · 박지은 · 홍영석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1년 12월 31일 / 발행 · 2011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21(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80-9 03350

<http://www.cdi.re.kr>

©2011.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